



서울예술치유허브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서울예술치유허브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006		011		020		048		086		102	
1. 연구개요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 흐름 및 현황		3. 예술치유 관련 선행연구 분석		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주요 내용 및 분석		5.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 모델 제안		6. 부록	
007	1.1. 연구 배경	012	2.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흐름	021	3.1. 국외 연구 사례	049	4.1.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주요 내용	087	5.1.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 개념의 준거점		
008	1.2. 연구 목적			026	3.2. 국내 연구 사례	066	4.2. 워크숍 주요 내용	089	5.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009	1.3. 연구 흐름 및 방법	015	2.2.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현황	038	3.3. 서울예술치유허브 연구 사례	082	4.3. 공론장 주요 내용 요약	094	5.3.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모델		
010	1.4. 연구 참여자							096	5.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핵심 사업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1. 연구개요

007	1.1. 연구 배경
008	1.2. 연구 목적
009	1.3. 연구 흐름 및 방법
010	1.4. 연구 참여자

1.1. 연구 배경

- **예술치유의 사회적 역할 확장에 따라 다양한 연구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예술치유와 관련된 개념, 기능, 타 분야와의 관계성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예술치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연구 작업이 필요한 상황
-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치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운영해 온 전문 기관으로서 향후 중장기 활동 방향에 대한 계획수립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서울예술치유허브와 관련하여 개념 연구, 평가 방안 연구 등이 진행되었음
 - 현재 시점에서 예술치유 전문 기관으로 깊이 있게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기초 연구조사 필요
-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참여해 온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기초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공론장 필요**
 - 서울예술치유와 관련된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행정가 등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연구 작업 필요
 - 서울예술치유허브 참여자와 예술치유 현장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공론장이 필요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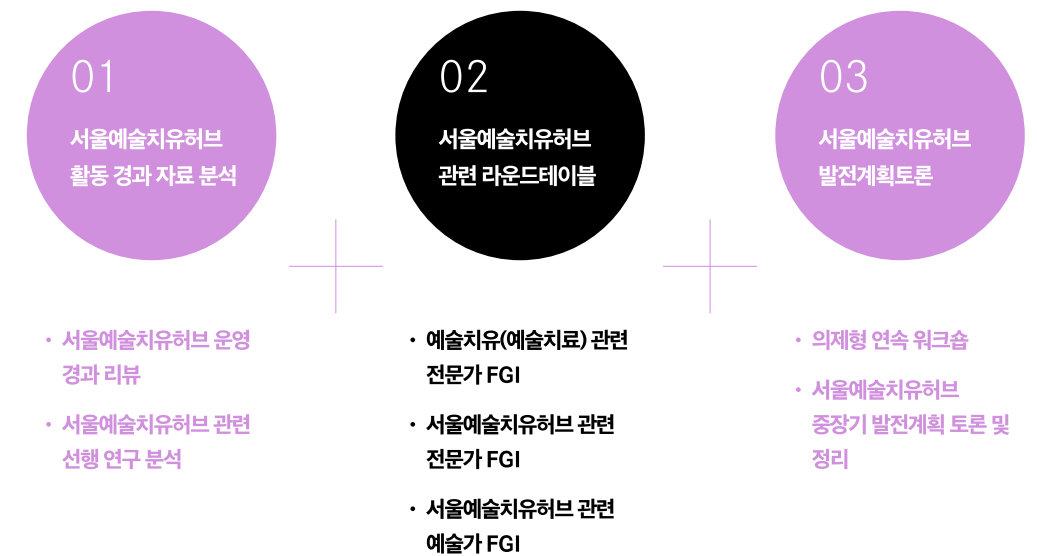
1.2. 연구 목적

- 서울예술치유허브 참여자를 비롯하여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운영을 통해 기관의 정체성 및 운영모델 구축
-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준점 및 방향성 마련

1.3. 연구 흐름 및 방법

- **문헌·자료 조사**
 - 서울예술치유허브와 예술치유 관련 사전 연구 조사 및 분석
- **의제형 연속 워크숍**
 - 서울예술치유허브와 예술치유 현장과 관련된 의제별 연속 워크숍 진행
 - 연구자,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 등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 운영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예술가, 연구자, 관계자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
 - 예술치유(예술치료) 관련 전문가, 서울예술치유허브 관련 전문가 및 예술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

[그림] 서울예술치유허브 '2018 예술치유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흐름



1.4. 연구 참여자

- 연구참여

책임연구원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공동연구원

박은선 명지대학교 교수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보조연구원

김재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임미혜

서울예술치유허브

이유나, 김보정, 우혜인, 이정민

미래전략팀

남미진, 박은희

011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 흐름 및 현황

012 2.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흐름

015 2.2.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현황

2.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흐름

도입기

2010

- 보건소 장소성 복원을 통한 시민의 마음과 지역을 재생하는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으로 개관
- 예술가 중심의 타 창작공간과 차별화 된 예술가와 주민의 공동 창작 및 시민문화예술 향유 거점
- 지역 중심의 예술치료(최초 예술치료 레지던시)/ 문화예술교육/디자인교육/예술 커뮤니티 공간
- 레지던시 공모사업 운영
(기획초청 : 예술치유, 디자인교육 / 입주공모 : 커뮤니티 아트)
- 지역의 복지(취약계층)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2011

- 국내 최초 예술치료 프로그램 특화
- 지역과 예술을 연계한 커뮤니티 아트 전문 예술기관으로 성장 모색
- 예술치료/커뮤니티 아트 중심의 프로젝트 공모사업 운영
- 지역의 복지(취약계층)와 연계한 성북구 방과 후 학교 지원

정착기

2012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창작공간으로 전환 :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공모
-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시민향유 사업으로 특화 운영

발전기

2013~
2014

- 예술을 통한 치유공간으로 전환
- 예술을 통한 치유 연구 시행(예술치유 모델 및 평가체계 개발)
- 운영위원회 구성
- 시민 대상 예술창작 프로그램 통합(자발적 시민 커뮤니티 간접지원)하고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집중
- 2가지 방향의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분리 지원하는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운영
- 예술치유적 속성을 지닌 예술 창작활동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
- 예술치료사의 치료 프로그램

2015

- 예술을 통한 예술치유 창작 공간으로 전환 : 예술치유적 속성을 지닌 예술창작활동과 치료 중심의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운영
- 서울문화재단 내 창작공간본부에서 예술교육본부로 재편(2015. 5월)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교육 확산(재단 정책 및 전략과제 연계) 및 예술 매개자 집중 육성
- 예술치유 생산/보급/향유 가능한 레지던시 및 예술치유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예술마음치유) 시범 운영 및 연구 확산
- 서울문화플랜2030에 장기과제 명시 및 사회적 예술 도출
-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운영(계속)



2016~
2018

- 서울문화재단 내 고유사업으로 전환
-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 변경을 통한
광역형 예술치유 거점공간으로서 입지 강화
- 지역에 국한한 주제/대상을 예술치유의 사회적 이슈에 집중한
서울 전역 대상으로 확대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교육 확산(재단 정책 및 전략과제 연계) 및 예술 매개자
집중 육성 기반 마련 :
예술치유 사회적 역할과 확장을 위한 '예술치유 입주 프로젝트' 공모 시행
- 사업명 브랜드화 추진 및 통합 공모 :
예술보건소(성인), 예술마음치유(특정집단/특수직군)
- 예술치료, 예술치유 시행 주체별 구분 폐지
- 거점형과 확장형으로 사업 구조화 및 운영
- 2017년 확장형 사업으로 사회적 예술치유(더힐링스쿨 등) 개발 확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 단계별 시행
- 사회적 취약점과 위기에 대한 예술을 매개로 한
예방 및 자가 치유적 해결방안 지원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 내 연계 협력 강화
-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방향 기초 연구를 통한 레지던시에서
랩(Lab) 공간으로 변화 모색(2018)

2.2. 서울예술치유허브 주요 운영 현황(2018년 기준)

(1) 개요 : “예술을 통한 시민의 삶과 사회 치유”

-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치유 전문 공간으로, 옛 성북구 보건소의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0년 7월 성북예술창작센터로 개관. 과거 보건소라는 장소적 특성을 살려
예술로 마음을 치유하고자 다양한 예술치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우수한 프로젝트 개발과 시민 참여를 선도해온 성과에 기반하여
2016년 4월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예술치유 공간으로 거듭났음
-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과 공간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예술치유와
서울(도시)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시민들의 마음의 위기를 회복하고자
사회적 예술치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역·교육·복지 등 예술가와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 공간(Lab) 및 협력구조를
구축하여 예술치유 플랫폼으로서 예술치유 생태계를 형성해나가고자 함

(2) 운영 목적

- 서울시민의 보편적 생애주기별 사회적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로서 예술치유 전문예술가 육성 지원
- 시민(예술가) 활동 지원을 통한 치유적 일상예술 활동 증진

(3) 주요 운영 사업

구분	운영목적	주요내용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지원	시민을 위한 일상적·사회적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간접 지원체계 구축	• 입주 프로젝트 지원사업 (거점형) - 예술보건소(일반성인) / 예술마음치유(특수직군 및 특정집단) - 예술가 / 예술치료사 대상 예술치유 전문가로서 인큐베이팅 지원 - 정기 공모를 통한 8개 단체 선정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16건 개발 •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젝트 (확산형) - 더힐링스쿨(위기 청소년) / 힐링아지트(지역 청소년)/힐링워크숍(청년) - 서울예술치유허브 1~8기 입주 예술가 / 예술치료사 대상 프로그램 제안 공모 - 예술치유 관련 대학과 협력 사업 운영 - 예술치유 콘텐츠 15건 개발
		• 상호티칭워크숍 및 네트워킹 지원 - 프로젝트 기획 / 실행 역량 제고 및 예술가 자기성장 촉진 프로그램 지원 - 예술가, 예술치료사, 지역 및 광역 간 사례공유 및 공동학습을 통한 상호 역량개발

구분	운영목적	주요내용
예술치유 연구 및 확산	예술치유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 보급 및 대내외 역할 확대	• 연구사업 - 예술치유의 개념 정립 및 허브 중장기 역할모델 개발 • 예술치유 총서 - 예술치유를 통한 위기 청소년과 예술가의 협업 사례집 발간 • 운영위원회 - 각계 전문가 위촉을 통한 주요사업 자문 및 대외협력 • 대내외 연계 및 후원 구축
시민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시민의 자발적인 치유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 갤러리 맺음, 옥상공방, 옥상치유정원 운영 • 밴드실, 주민창작실 공간 대관 운영

(4) 공간 운영

- **개관**
2010년 7월 舊성북예술창작센터로 개관,
2016년 4월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 변경
- **위치**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 3길 17(종암동 28-358번지)
- **규모/시설현황**
대지787㎡(238.07평),
연면적1,997.84㎡(604.35평),
지하 1층~지상 4층, 옥상

구분	면적(㎡)	용도
지하층	498.07	주민 창작실, 밴드실
1F	329.68	입주단체 스튜디오 (2실) 예술다방
2F	365.59	운영사무실 입주단체 스튜디오 (1실) 기획연구실 갤러리맺음
3F	365.59	입주단체 스튜디오 (3실) 미술치료실 회의실
4F	365.59	입주단체 스튜디오 (2실) 다목적실 공동휴게실
옥상	73.32	옥상 공방 옥상 치유 정원

3. 예술치유 관련 선행연구 분석

021	3.1. 국외 연구 사례
026	3.2. 국내 연구 사례
038	3.3. 서울예술치유허브 연구 사례

3.1. 국외 연구 사례

- 예술치유에 대한 절대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예술치유를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와 개념들의 조합이 존재
- 예술치유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은 아래와 같음
 - 예술과 건강 | Arts and Health
 - 건강 안의 예술 | Arts in Health
 - 건강을 위한 예술 | Arts for Health
 - 치료를 위한 예술 | Arts for Therapy
 - 예술과 행복감(안녕감) | Arts and Wellbeing
 - 치료적 예술 | therapeutic arts
 - 치유예술 | healing arts
 - 예술과 치유 | arts and healing
- 예술치료(art therapy)가 갖는 임상적 특징과의 뚜렷한 구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비치료적 예술 | non-therapeutic arts
 - 비임상적 예술 | non-clinical arts
- 스테키와 노블(Stuckey & Nobel)의 경우
논문 <예술, 치유, 국민건강을 연결하기> (2010년)에서 예술치유(arts and health)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대신 “예술의 발견, 탐색, 공유 등 예술의 본질적 요소가 어떻게 치유과정에 접목되어 건강 전반에 변화를 주는가를 증명하는 것에 주목”

- 국외의 경우 예술치유를 둘러싼 개념 정의에 있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일련의 모든 예술 활동”, “예술창작 자체가 전인적 성장과 치유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일련의 창작활동”이라는 광의적 해석을 사용하고 있음. 예술치료뿐 아니라 예술교육 등 제도권 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특정 예술 활동 분야와 상대적 비교를 통해 예술치유에 대한 개념적 구분과 영역을 정립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
- 영국예술위원회(ACE)는 예술치유(Arts in Health / Arts and Health)로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고, 2012년 국립예술치유연맹(National Alliance for Arts Health and Wellbeing, NAAHW) 발족
 - ACE는 예술치유에 대해 ‘작품과 공연을 통해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예술기반 활동’으로 정의
 - ACE와 NAAHW는 예술치유에 속하는 5개 분야 설정하여 개념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혼재된 부분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보완. 주목할 점은 ACE와 NAAHW가 제시하는 5가지 범주의 경우 예술치료와 예술치유를 구분하지 않으며, 예술치료를 예술치유의 한 범주로 포괄하고 있음

[표] 영국예술위원회의 예술치유 개념 및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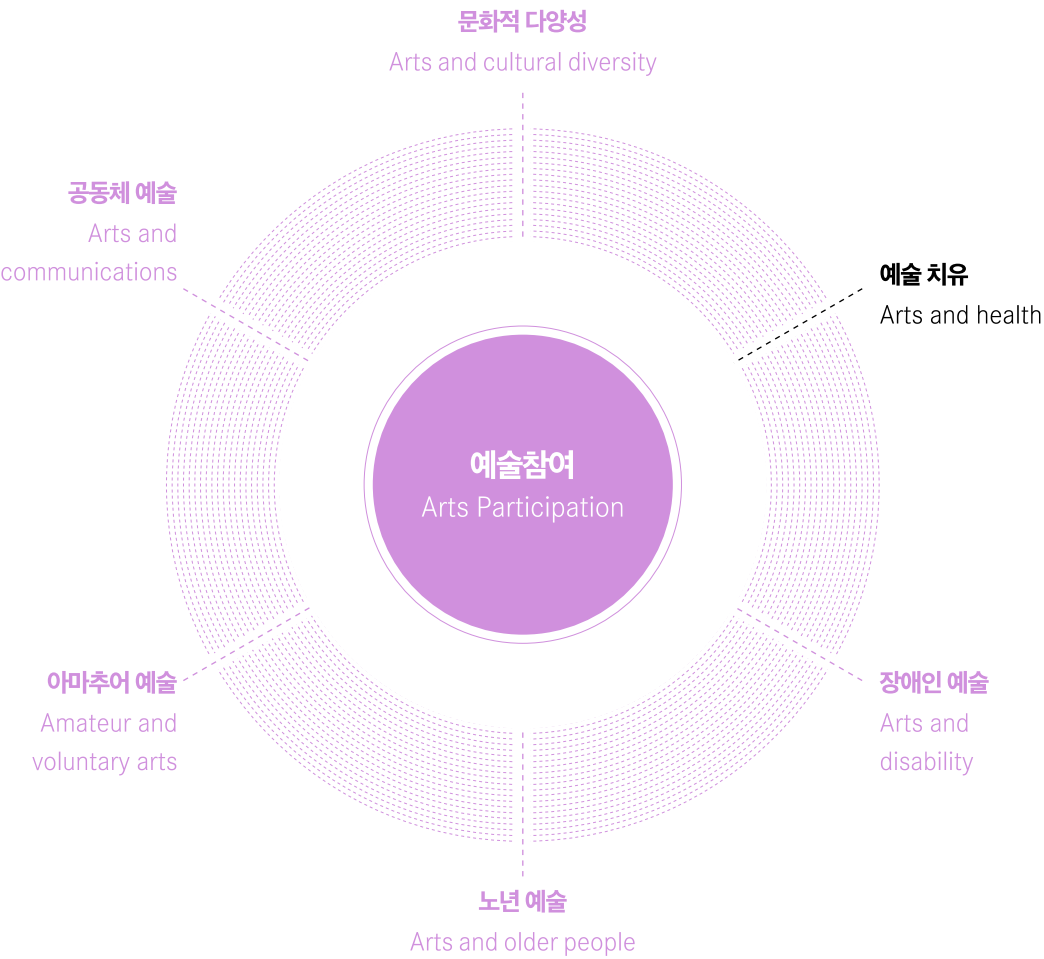
a. 건강관리시설 내 예술 Arts in the healthcare envirnment
건강관리시설 이용자(환자, 환자의 가족)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b. 시민참여예술 프로그램 Participatory Arts Program
지역공동체 구성원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c. 의료훈련 및 의료인문학 Medical training & Medical Humanities
의료진(간호사, 의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참여 프로그램
d. 처방(추천) 예술 Arts on Prescription / Arts on Referral
정신적 건강 또는 고립된 이들을 위한 예술참여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결정
e. 예술 치료 Arts Therapy
의료전문위원회(Health Professions Council)에 등록된 전문 예술치료사의 개입

- 아일랜드예술위원회(ACI)는 “예술치유(Arts and Health)란 건강관리시설 (예 : 병원, 보건소, 장애시설, 재활시설, 노인요양원 및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주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을 지칭하며, “예술과 건강 두 분야의 전문성이 모두 함께 고려되는 분야”로 정의
- 기타
 - 예술치료(non-therapy arts)란
“임상적 치료(clinical) 경력을 가진 예술치료사가 치료에 예술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와 참가자의 창의적 활동 참여로 몸과 마음이 자생적이고 자발적 회복과 안정을 되찾는 활동” (Langley Brown, 2006)
 - 예술치유(creative arts in therapy)란
“다양한 창의적 과정과 예술을 통해 건강과 치유(healing)를 증진시키는 행위”로 특정한 장애의 완화, 의료 또는 수술 후의 회복,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을 위해 열려있는 장” (Bernie Warren, 2008)

[그림] 아일랜드예술위원회의 예술치유 개념 및 분류 체계

시민을 위한 예술참여활동의 종류

출처 : Arts Council Ireland(2011)



3.2. 국내 연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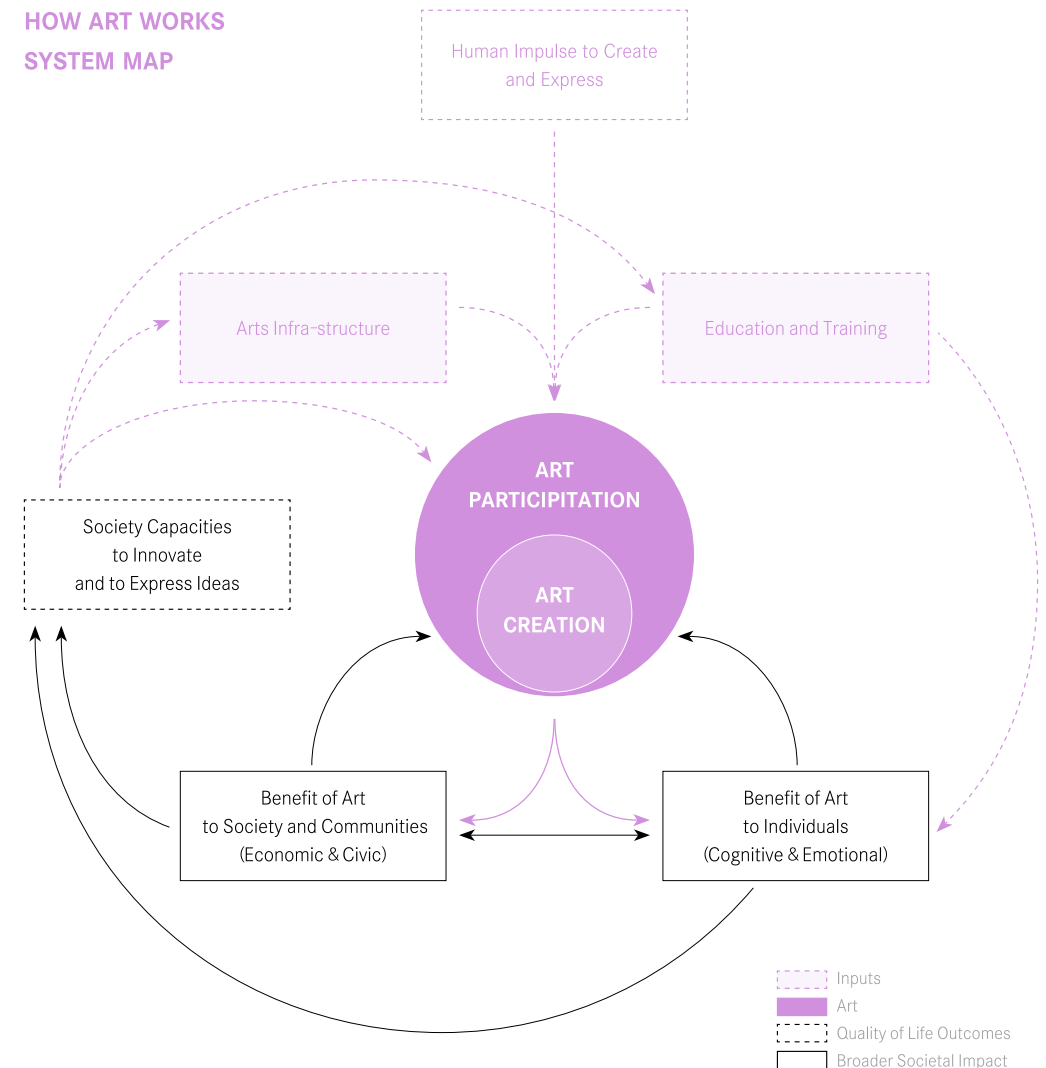
- 예술치유의 개념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앞서 살펴 본 영미권 등 국외 연구의 흐름과 유사
- 한국의 경우 연구와 개념은 국외 연구를 가져와 한국에 적용하는 수준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 치유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정여주·정현주·김나영·김윤태, 2007)는 치유는 치료보다 광의의 의미로서 인간의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 문제나 갈등 및 고통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술치유를 “예술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심리적, 심리사회적,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회복하여 전인적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
-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는 예술치유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으로 규정. 예술치료는 “예술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긍정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서, 예술 안에서의 경험과 예술에 의한 관계를 통하여 삶에 있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접근. 예술의 치유적 힘에 근거하여 예술치유에서 예술치료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

[그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 사례에서 본 예술치유 개념화

예술치유의 효과에 대한 모형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p.16

HOW ART WORKS SYSTEM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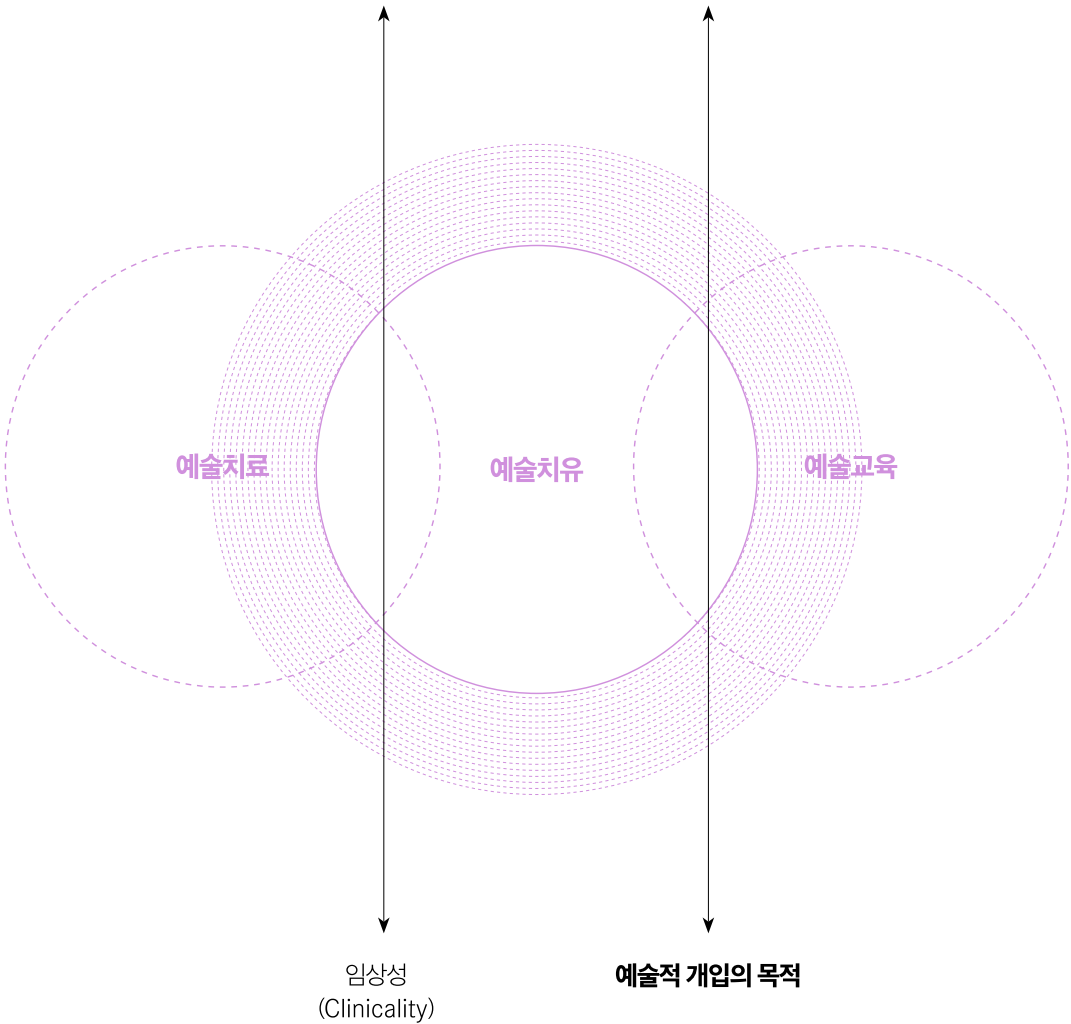


- 해당 보고서는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의 관계를 구분하여 설명 :
예술치료와 예술치유는 임상성(clinicality), 다시 말해 대상이 환자라는 점을 강조
예술치유와 예술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술적 개입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
“예술치유가 주로 표현적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자존감 회복, 심리적 위안 등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예술교육은 특정한 지식이나 스킬의 습득 또는 일반적인 문화적
소양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

[그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 사례에서 본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의 관계도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의 관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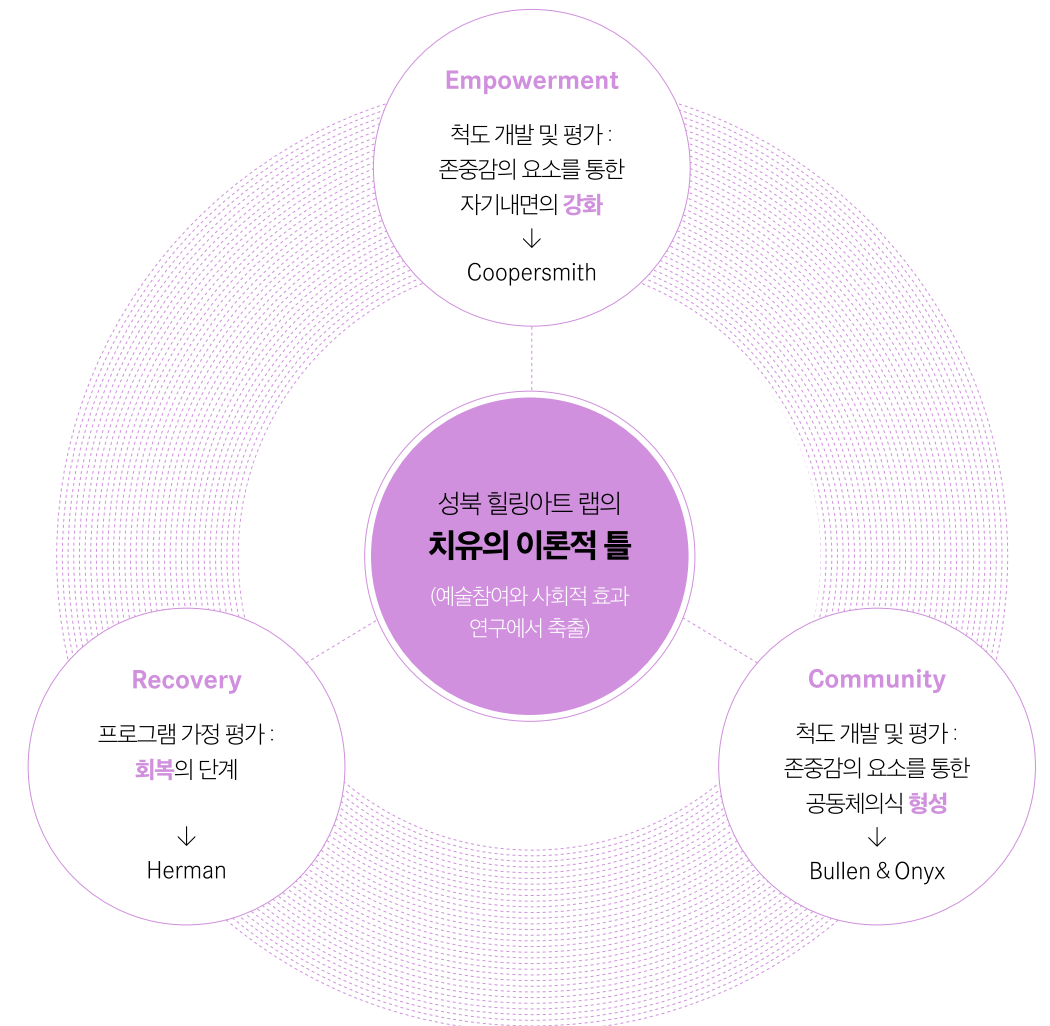


-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유 모델 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13)는
예술치유의 개념을 크게 4가지로 정의.
하지만 정의보다는 방향성과 효과를 제시하는 방식
- 예술치유는 인간의 전체성에 근거하여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행동 및 갈등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 예술치유는 삶의 질과 연관 지어져야 하며,
예술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 문제해결력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다
- 자신과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며,
자기실현에 대한 동기유발에 초점을 둔다
- 치유대상은 의학적 개입과 차별화 된다

[그림]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연구 사례로 본 예술치유 평가틀 모형

평가틀 모형

출처 : 서울문화재단(2013), 2013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방향 연구. p.51



[표] 국내 연구의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 개념 비교 사례(1)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 개념 비교

출처 : 오원식(2014), 예술치유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
정의	예술을 도구로 한 의료적 처치	예술을 활용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적 전체성의 회복	예술작품을 생산해내는 기술과 지식의 전달
목표	환자의 질병치료와 회복	참여자의 내적변화	수월한 예술작품 생산
주안점	치료사의 구체적·의학적 개입을 통한 치료	참가자 내면의 자가 치유력을 통한 회복	예술작품의 작품성
영역	의학적 개념으로 보건의료영역	경험적·정서적·영적인 개념으로 문화영역	교육적 개념으로 교육영역

- 국내 연구 사례들을 참조했을 때 예술치료는
“환자의 질병치료와 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예술을 활용하고
치료사의 의학적, 구체적 개입이 이뤄지는 치료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예술교육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생산에 초점을 두며 예술작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전달행위로 이는 교육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의 경우 문화예술 치료, 문화예술 치유, 문화예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음

[표] 국내 연구의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 개념 비교 사례(2)

문화예술치료 / 치유 /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점



-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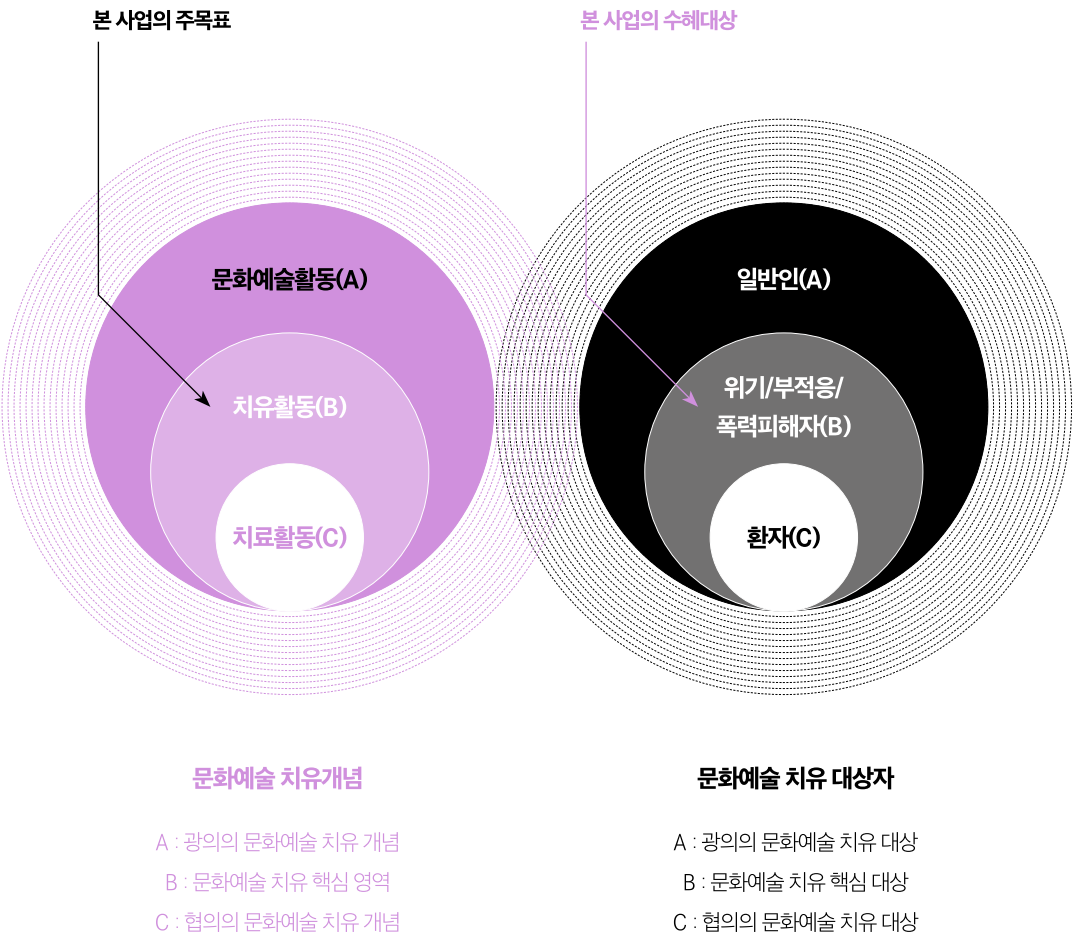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전문조직(문화예술치유팀)을 설치하고
인력 확보하여 사업 관리
- 전문가 자문단(분야별 예술치유, 심리, 상담 분야)을 구성하여 운영
- 협력 시설들과의 사전 워크숍 및 사후 평가회 개최,
운영단체와 시설담당자들의 미팅 주선, 우수 시설 담당자 표창,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간 확보 추진 및 인근의 공공기관/문화예술시설 활용 방안 강구
- 분야(장르)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운영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프로그램, 우수 사례 등)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선방안]

- 치유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된 분야부터 실시하되, 필요시 사업 기초연구를 추진
- 운영단체가 치유 시설 대상자들의 연령과 학교급, 상태(가해자/피해자)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도록 할 것을 제안
- 연구를 통해 확인된 대상별 추천 프로그램을 시설담당자에게 공지하고,
시설담당자들이 선택하도록 할 것을 제안
- 운영단체가 선정되면, 각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고 시설과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의무화
- 시설 담당자의 역량이 갖추어진 경우, 운영단체와 시설담당자가 공동으로
프로그램 기획을 하도록 장려
- 사업의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단기 프로그램(10회 미만)은 가급적 제외.
가급적 장기 프로그램(30회 이상)을 기획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최소한 중기프로그램(15회)을 운영할 것을 제안.
최종적으로는 수요자(시설담당자 및 수혜자)의 요구(필요)를 반영하여
적정 회기를 산출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시설에서 치유 대상자 선정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의 연속 수혜를 지속할 것을 제안
- 예술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연수체계 구축 및 운영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동투자를 할 경우, 더 많은 치유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
- 부처 공동협력 사업으로 정의하고, 시설이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
- 전문예술운영단체와 더불어 문화센터, 대학,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
- 지자체가 치유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
- 사업 운영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 치유적 관점을 중시하는 운영단체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예술적 접근을 강조하는 운영단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그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치유 연구 사례를 통해서 본 개념화



3.3. 서울예술치유허브 연구 사례

(1) 서울예술치유허브(구 성북예술창작센터) 연구

<2013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방향 연구>
(2013.12)

서울예술치유허브 SWOT 분석 결과 및 대응 전략

Strength (내부 강점)

-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속함
- 서울문화재단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외부 신뢰도 확보
- 여타 서울시창작공간의 다양한 지원 (시설, 예술가 네트워크 등) 활용 가능

Weakness (내부 약점)

- 국내의 예술치유에 대한 개념 취약
- 예술치유 관련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 및 단체 취약
- 1년 단위의 입주형태가 다양한 작가 및 단체 참여의 제약이 될 수 있음

Opportunity (외부 기회)

- 정신건강의 중요성, 힐링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부각 및 관심 형성
- 힐링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의 가능성
- 스튜디오형 레지던시와의 차별성 부각, 특성화 창작공간 운영의 용이함

Threat (외부 위협)

- 인근에 유동인구를 높일만한 기관 및 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 유입인구 한계
-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로써 일반인들의 낮은 이해도와 관심도



개선방안 제안

❶ 프로젝트 기반 단체 모집에 따른 운영 방안 개선

- 1년 단위로 입주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 외에 다양한 거주 기간과 활동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참여 단체의 수치를 확장함
- 이를 위해 1년 입주 유형이 아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단기간 입주를 시도함

❷ 창작 유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 예술치유, 'Non therapy art'로 규정할 만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작가 및 단체 대상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서 치유 효과를 갖는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강화함

❸ 프로젝트 관련 유관기관 파트너십 구축과 외부 연계사업의 확장

- 프로젝트별 참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모집하고, 참여 구성원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참여자 모집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여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성과 축적을 꾀하도록 함
-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실제로 성북예술창작센터의 활동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확장과 자원 조성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성북예술창작센터가 중심이 되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방식을 실행해 볼 수 있음
- 1차적으로 유관기관을 범주화하고 각 기관별 특징과 니즈파악을 선행함. 이를 바탕으로 관련 예술가를 해당 기관과 매칭(matching)하고 프로그램 정교화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음
- 유관기관으로는 각 지역별 정신건강센터나 병원과 같이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과 아동·청소년 센터, 여성관련 센터, 난치성질환 센터와 같이 잠재적 니즈가 있는 기관 그리고 주민센터, 작은도서관과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음
-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유관기관과 예술가의 매개자가 되어 해당 기관의 범주 및 니즈에 따라 파견가능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제고하고 예술가가 해당 기관의 현황, 특수성, 참여자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 또한 관계를 형성한 예술가와 기관 및 참여자가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관,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형태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④ 프로그램 평가모델 구축에 따른 효과 연구

- 과정평가에 대한 시도를 하되, 일정한 전문연구집단(대학연구소, 예술치유 관련 연구소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 속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이로써 성북예술창작센터의 R&D 기능을 구현함
- 이러한 평가방식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기반으로 예술치유 창작활동을 확산하고, 우리나라의 예술치유 연구와 담론 형성을 주도함

(2) 서울예술치유허브(구 성북예술창작센터) 연구

<2014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적용 사례 연구>(2014.12)

주요 쟁점

① '예술치유' 용어개념 확립 및 공유

- 프로그램의 운영자 및 참여자에 따라 '예술치유'의 개념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외상의 치료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힐링, 카운슬링 등의 개념을 혼재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이나 참여자를 인지하고 있는 방식이 차이가 있음. 현재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술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 참여자의 소통확대 등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예술치유'에 대한 개념 확립 및 공유가 보다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운영자 뿐 아니라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과정 역시 보다 주도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새로운 예술을 제안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② 과정과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예술 제안

- 예술치유에 대한 개념 확립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예술'에 대한 범주와 창작의 과정임. 지금까지는 예술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모더니즘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우수한지,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해 왔음. 이러한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예술 활동이 예술로 인지되고 작가의 참여를 확대시키는데 한계를 지니게 됨
-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수월성이 아닌 협업과 소통을 통한 창작, 즉 과정(process)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즉, 관계의 지속성을 통해 예술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써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임
- 참여자들 역시 작가와 함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술이 지니는 정화기능 및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험을 토대로 한 자기변화를 확인할 때 예술의 치유효과를 입증할 수 있음

③ 물리적 시공간 확보

- 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자의 인터뷰, 그리고 운영자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 진행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시간/횟수와 공간의 문제임. 시간의 경우 회차별 시간의 증가가 아닌 프로그램 횟수 증가를 통한 확보가 요구됨. 시사점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치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함. 최소한의 시간확보도 안된 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연장, 미술관 등에서 시행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운영자의 프로그램 기획방향, 참여자들의 연령,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제안

❶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정체성 확립

-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예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유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 사실 아직까지도 혼재 되어 있는 개념과 천편일률적인 예술치유/치료/힐링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보다 궁극적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❷ '예술치유'와 '새로운 예술'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 이를 위해 유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나 관련 예술가, 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예술치유에서 예술의 범주와 치유의 개념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간과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성북예술창작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이 경우 예술치유 개념에 근거하여 성북예술창작센터의 특성화 된 창작공간으로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❸ 사회적 이슈 및 유관기관과의 연대

-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 점차 확대되면서 센터의 지향점과 사회적 요구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예술치유사업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실제 성북예술창작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인지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임. 이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함. 예술치유를 실천할 수 있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예술창작의 영역을 개발한다면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임

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공론장 주요 내용 및 분석

049 4.1.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주요 내용

066 4.2. 워크숍 주요 내용

082 4.3. 공론장 주요 내용 요약

4.1.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주요 내용

(1)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구성 및 목표

- 현장성 증진을 위해 사업 참여자, 문화예술 관계자, 예술가와의 라운드테이블 진행
- 의견 수집과 주요 내용 정리를 통해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방향 전략 모색

진행 경과

[1차] 예술치료의 개념 및 의미화

일시	2018년 6월 15일(금) 16:00
장소	문화디자인 자리
참여(전문가)	박은선(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최민순(예술교육 작가, <앨리스와 토끼>)

[2차] 예술치유의 개념 및 의미화

일시	2018년 6월 29일(금) 16:00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4층 스페이스 나눔
참여(전문가)	김인설(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진은영(시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3차] 서울예술치유허브 입주단체(작가) 의견 수렴

일시	2018년 8월 6일(월) 13:00
장소	광화문 센터포인트 Room C
참여(입주 작가)	진아영(그림마음연구소), 오지민(기획자), 김효진(응용연극단체 문), 류미(자큰복스), 김현주(A.C.클리나멘)

[4차] 외부 관계자(예술가, 기획자) 의견 수렴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13:00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3층 스튜디오 #5
참여(외부 작가)	남인우(극단 북새통), 김지연(프락시스), 홍혜전(홍댄스컴퍼니)

(2)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주요 의제

- 예술치료의 개념 _ 미술치료를 사례로
- (사회적) 예술치유의 개념
- 치료와 치유의 구별
-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
-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과 운영
- 예술치유의 정책화 과정

(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주요 내용 분석

예술치료의 개념 _ 미술치료를 사례로

- 예술치료를 정의 내리는 방식의 다양성
- 병리의 범위 확대로 인한 치료의 개념 변화

“치료’라는 개념은 자칫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관계 없이 적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적, 행동적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촉진시키는 것이 있다는
게 정의예요”

“치료는 옛날에는 큐어(cure)예요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됐어요.
그 다음에는 케어(care)의 범위로 들어갔어요”

- 미술치료에서 ‘해석’이 차지하는 의미

“미술치료에서 해석은 큰 의미를 가져요. 처음 그림이 미디어에 공개 되었을 때는
해석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러나 부적절할 경우 증거를 가지고
너는 이래라 말할 수도 있고 치료 방향에 대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해석은
신중해야 돼요”

• 치료에서 미술의 범위와 진행 방법

“치료에서 미술범위를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림 그린 것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작업 과정, 신체적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작업이 어려울 경우, 이미지나 상상연상 같은 것을 치료할 때 쓰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시각적, 무의식적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미술치료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인식에 대해 다시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은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겪어온 경험의 다양성에 따라 특성이 달라져요. 미술치료는 이러한 것들을 현재에서 다시 보게하는 통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작업할 때 즐거움을 부여하니까 특히나 환자분들은 병원 안에서 상당히 수동적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능동성을 부여받게 되니, 또 다른 정체성이나 탐색이 용이하기도 해요.”

• 치료사의 위치와 역할, 정체성

“치료사와 같이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험을 위해 좋은 장을 열어 주는 게 치료사의 역할이라고 말을 해요. 교육의 질이 교육자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무리 고급기술을 많이 배워봤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사는 자기가 없어도 안 되고 자기를 드러내도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유체이탈 하듯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의식이 강하면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것들이 다 도구화되는 거예요.”

- 치유적 예술가 혹은 예술적 치유가가 아닌, '예술치료사'라고 하는 것의 차이

“대부분의 예술치료사들이 예술가이면서 치료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선 경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훈련과정에서의 실행에 있어 요구하는 것이 다르구요.”

“예술가인데 사회적 치유에 참여하실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세팅이나 훈련이 들어가야 하고 치료사들 역시 미시적 세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는데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오픈한다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교류하는, 양쪽에서 합의하는 지점이 중요해요. 치료사가 사회적
관점이 없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의 방식이 사회적 방식으로 꼭 가야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예술가도 치료사처럼 굴어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술치료사라고 하는 건, 정신분석을 베이스로 하지만 어쨌든 주로 내담자를 만나는
매체는 예술이고 거기서 쓰는 예술은 완성도가 있는 예술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적
자원을 투영해보는 넌센스로서의 예술 작업들.”

(사회적) 예술치유의 개념

- (사회적) 예술치유와 예술의 치유적 의미

“다양한 예술 활동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회신과 응대에 좀 더 신빙성을
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예술치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표현과 공유 또는 개방성 자발성 이런 개념과 매우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된 대상을 통해서 실제 사회의 인식까지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의 원동이 예술치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

“예술치유는 예술의 내재된 치유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

“오랫동안 예술가 분들과하고 협업하고 활동하면서 사회 지역적 의제와 관련해서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중재하는 활동. 사회적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예술적 작업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술을 통해 해당 문제의 본원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치유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예술치유의 중요한 점은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술의 치유적 의미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율성과 실존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트라우마 치료에서
치료의 최종 완결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이예요.”

•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한 국가 공동체 시스템 내에서 다수의 구성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현상. 국가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다수의 구성원에게 동시에 일어나든 그렇지 않은 무력한 이들의 고통이자 그 고통에 대한 공포심의 표현,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가 어떤 수치심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예술치유가 좀 더 집중해야하는 대상은 사회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어떤 대응 방식이 필요한 대상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정책적으로 얘기할 때 예술치료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불운을 겪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될 수 있다면. 예술치유에 대한 방점을 찍는다면 사회 전반의 변화나 인식개선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있어서 더 강력한 기능을...”

• 예술의 치유적 속성에 대한 예술가의 자기 경험 필요

“예술은 이미 내게 처음부터 치유로 다가왔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술가지고 자신이 치유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집단일 수도 있더라는... 사실 이게 잘 되려면 예술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예술가 자신이 일단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자기 자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충분히 시켜야한다.”

“저 뿐만 아니라 시인들 많은 예술가들이 유년의 상처나 개인적인 현실적인 상처들을 예술을 통해 내가 시를 쓰면서 치유 받는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예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술작업에 시초에 예술치유의 경험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술치유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제일 처음에 예술을 시작했을 때, 예술로 치유됐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이라는 것.”

• 치료와 치유의 구별

“한국은 특수상황이긴 한데요 치료는 치료사만 해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보건법상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사람이 하는 게 치료예요.”

“제가 느끼는 건 아트 자체의 힘으로 각자 개인 안에 내면의 치료적인 힘으로 작용 되서
치료가 되는 건 힐링이고 치료사가 개입해서 목적으로 끌고 가는 건 치료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줬는데 이 분이 효과가 좋아서 치료가 되고 저 분은 안 되고 이게
치유 힐링 이고 치료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무조건 효과 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

-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예술치유’의 혼재, 복잡성
-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의 구별과 차이

“제가 상상했던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말하는 예술치유의 개념은 예술이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변화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으로 형성하려고 하니까 교육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치료적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서는 조심해야하는 것이 명확하죠 대상자가 청소년이고 어린이고 이럴 때
우리가 절대하면 안되는 것들이 명확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확한 공간이고요 교육의 대상은 사실은 틀이 명확한 것 같아요.”

“예술교육은 치유적 가치에 한정되기보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적 가치나 방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예술치유는 그야말로 치유적 관점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물론 예술교육도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의
목적과 양상이 다른 거죠. 그걸 다루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출발점이.
예술교육 방법은 하다못해 참여자 중심의 예술교육이 있을 수 있고, 기술과 습득
위주의 예술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양한 방식의. 근데 예술치유라고 했을
때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치유적 방식이나 효과, 가치를 두고 있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요.”

“문화예술교육하고 예술치유를 같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예술교육에
하위개념으로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구분을 했으면 해요.
예술교육이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했지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거나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더
분리되었으면 해요. 문화예술교육의 한 파트가 예술치유라는 것으로 느껴졌고...”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과 운영

-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과 운영
- 예술 중심인지 치료·치유 중심인지 불명확

“예술강사, 예술치료강사, 문화예술활동가 그리고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기관이 지을 필요도 없고 통합 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활동가라고 해서 치유적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가라고 해서 치유와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통합하고 정체성을 정의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치료를 요구하시는 분을 매번 만나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가끔 와서 저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허브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주되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이 공간의 무엇을 인지시켜주고 싶은지, 이 공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치료, 아트 테라피(art therapy)가 아니고 아트 힐링(art healing) 관련된 것을 찾아봤는데, 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개인들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술치유허브도 사람들의 이쪽을 끌어오기보다 ‘허브’라는 형태로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는 형태랑 여기에서 활동하는 형태를 겸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예술가로서 시민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는데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예술치유라고 했을 때는 예술치유라는 것이 아예 따로 만들어 지는 게 속 편하겠단. 예술가가 치료를 하고 치료사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술치유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는게. 치료소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고 치료색을 다 빼래요. 그럼 예술가만 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 서울예술치유허브가 가지고 있는 강점 발굴 필요

“만약 인큐베이팅이 목적이면 지속적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정말 치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연구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팀 작업을 위한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지원 되어도 저희가 원활하게 활동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워크숍이나 연습을 위해 공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악 치료실이나 미술 치료실 같이 특성화된 공간이 존재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허브로서, 성북이라는 지역정보다는 서울 전체를 아우르는. 서울 전체를 아우르며,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거죠.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들이 선행이 되어서 그 안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을 선정하는 게 좀 더 이름에 맞춰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단체 경험별 인큐베이팅과 자발적 네트워크를 위한 설계
- 협력자, 공동연구자 개념의 파트너 필요
- 레지던시 혹은 LAB 형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필요

“공간에 입주한 팀들끼리도 서로 멘토나 멘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방식. 이 공간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전문가를 더 전문가스럽게 양성하는 것도 인큐베이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년 쯤 이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일괄적인 공모와 일괄적인 선발의 방식을 변화시켜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 예술치유 과정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 전문적 경험/정보 겸비한 컨설턴트·멘토 필요
- 전문가 그룹과의 매칭과 협업 필요

“또 다른 분석적, 상담적 전문가 등이 결합해주셔서 대상별로, 어떤 효과가 있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혹은 작업을 함에 있어 사회학자든 역사학자든 사안에 따라 전문성 있는 컨설팅이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컨설팅을 선택하게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 매칭할 수 있는지 안내 정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허브가 치료 치유 중심이라면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을 굳이 불러 모았는데, 예술과 시민이 만나 예술적 경험으로 치유의 경험을 만들어 주겠다고는 하는데 기관 매칭은 했는지 어떻게 할 건지 부터 묻는 것이 상당히 당혹스럽더라고요.”

“평가를 받을 때 인원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로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뭐했지라는 생각들이 들곤 했어요. 흐름상 소통이 잘 안 되서 평가 오시는 것 상관안하고 내용을 좀 수정했었어요. 진행 흐름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굳이 참여자들에게 보여줬는데, 평가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술을 통해 소통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자꾸 평가에 연연하여 진행하는 거냐고 하시니까. 어디까지가 평가이고 멘토링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와서 평가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긴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8회 차에 어떤 형태든 간에 치유허브 분들이 아예 참여해서 역할을 가질 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오신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신경이 분산되다보니 작업에 온전히 집중하긴 어렵거든요.”

“심사 할 때 힘들어요. 저희 나름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엄청 많이 해요. 심사 딱 들어가면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미술 치료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해요?' 이런 질문부터 하니까 미술 치료를 설명할 수도 없고요. 해보면 이해가 높은 거고 안 해보면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짧은 입주기간과 지리적 위치의 한계

“제가 예전에 여기 객원으로 있을 때, 3년 정도씩 계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분들은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좀 더 다양하게 열어두고 모집을 할 순 없는지.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따라 1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중랑구에 있는 복지센터에 하려고 했는데, 지리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허브에 오시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랑구에 와서 해줄 수는 없겠느냐 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조율하다가 그 분들하고는 못하게 됐고 한 분, 한 분 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공간에 사람들이 와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분 한계성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 프로그램 대상자, 지역 정보에 대한 기록이 필요

“서울예술치유허브가 8년? 9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소소한 기록들이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같은 지역에서 작업하는 작가들한테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치유의 정책화 과정

- 예술치유가 일반 서비스와 다른 점에 대한 합의 필요
- 예술치유의 대상을 일반화 시키는 문제점
(서울예술치유허브 만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 필요)

4.2. 워크숍 주요 내용

4.2.1. 1차 주요 내용 _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시기별 주요 흐름

10년

- 창작공간으로 개관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공간(TA(Teaching Artist) 역할 강화)
- 예술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 거점 공간
- 제안 프로젝트 지원 공간(시민 창작 중심 레지던스)
- 취약계층과 연계한 교육지원과 예술가들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

11년

- 국내 최초 예술치유 프로그램 특화 센터
- 커뮤니티 아트 전문 예술기관으로 성장

12년

- 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창작공간(예술치유 빠짐)
- 예술가와 기획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 시민향유사업 특화 운영 계속

13년 ~
14년

- 예술을 통한 치유공간으로 전환
- [연구사업]예술을 통한 치유공간 연구 시행
- 운영위원회 결성
- 재단 정책&전략과제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교육 확산
- 예산 축소(기획 프로그램 통폐합 → 예술치유 프로그램 집중)
- 2가지 방향의 예술치유 프로젝트 분리 지원
- 예술치유적 속성을 지닌 예술 창작활동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
- 예술치료사의 치료 프로그램
-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15년

- 창작공간본부에서 예술교육본부로 편재
- 예술치유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음
- 서울시 및 서울문화플랜2030 연관
- 사회적 예술치유 시범 프로그램 연구/확산
-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16년 ~
18년

- 고유사업으로 전환
-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 변경(광역형 예술치유 거점공간)
- 사업명 브랜드화(예술보건소, 예술마음치유)
- 예술교육본부 내 연계 협력 진행(16년 ~ 현재)
- 거점형, 확장형으로 사업 정리/운영
- 사회적 예술치유 시범운영을 통한 생애주기별 시민 대상 지원 본격화

논의 내용

(1) 예산 축소 원인

- 2016년에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재단 자체에서 책정
- 초기 하드웨어 조성을 위한 민간 대행 사업비 비중이 높았으며, 조성 완비 후 민간 대행 사업비 축소되고 없어짐

(2) 2012년 커뮤니티아트 창작공간에서, 2013년 치유공간으로의 전환 시 논의 과정

- 2012년 창작공간 전반에 걸쳐 예술가 지원과 지역 재생 이슈가 형성 - 시민 대상 프로그램 강조 : 다수의 시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던 성북에 시민 프로젝트 기능을 집중
- 2013년에 창작공간들의 고유사업화 진행 (창작공간의 특성화 전략, 남산+연극/ 금천+시각 등 : 성북의 경우 '예술치유'라는 특화 분야에 집중

(3) 창작공간에서 예술교육본부로의 소속 변경

- 예술교육과 치유의 공통점 : 예술가들이 창작자로서의 모습보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학습을 통해 변화를 일으킴(상호작용)
- 이러한 변화를 예술교육 분야로 집중하고자 함

(4) 연도별 운영위원회 이슈

- 2013년 운영위원회 결성, 센터의 예술치유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진행
- 2014년 치료사가 아닌 예술가가 특정한 대상층을 만날 때 이해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
- 2015년 예술치유의 전문적 공간으로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 고민,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과 성과 축적 논의. 센터의 명칭 변경안과 더불어 성북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 고민
- 2016년 입주 작가 중심으로 운영위원 구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질적 내용 논의, 변경한 명칭에 대한 대외 홍보 방법 논의
- 2017년 생애주기별 예술치유 지원의 등장으로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논의,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 인식

(5) 예술치유 생태계(씬, scene)에 부합하는 지원 전략 설계 필요

- 예술치유가 축적될 수 있는 주체 형성
- 사회적 예술, 커뮤니티 아트, 예술치유 등의 개념이 혼재된 상황
- 정책적 사업으로만 매몰,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의식. 이에 대한 정합성 마련 필요

4.2.2. 2차 주요 내용 _ 예술치료의 개념 및 의미화

발표 내용

(1) 예술치료의 개념 및 담론

- 예술치료를 정의 내리는 방식의 다양성(치료에서 미술의 범위와 방법과 과정)
- 미술치료에서 ‘해석’이 자리 잡는 비중과 의미
-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의 위치와 역할, 정체성
- 미술치료의 역사성

(2) 사회적 예술치유의 의미와 사례

- 사회적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예술적 작업의 전반
- 사회적 예술치유의 중요지점은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
- 예술의 치유적 의미는 자율성과 실존을 지켜나가는 활동
 - 자율성 :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 고덕 주공 재건축 현장과 강동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예술치료 사례

논의 내용

(1) 집단적 애도로 인해 개인적 회복이 간과되는 현상 우려

- 치료의 완결은 결국 자율성의 회복(집단의 자율성은 개인의 자율성에서부터 비롯)

(2) 자발적 주체 발굴을 위한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노력 필요
(네트워크 활성화)

- 규정된 횟수와 일회성 전시로만 귀결된 프로그램
- 사례와 경험은 풍부하나 축적되지 않음

(3) 내적(서울예술치유허브)인 변화를 꾀하면서,
외부(기관, 학교 등)라는 사회 환경도 살펴야 함

(4) 병리의 범위 확대로 인한 치료의 개념 확장 : “cure”에서 “care”로

(5) 예술의 내재적 성격에서 분화된 치유

- 예술치유는 예술의 내재된 치유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활동

4.2.3. 3차 주요 내용 _ 예술치유의 개념 및 의미화

발표 내용

(1) 예술가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문학상담 중심으로)

- 우리 시대의 상담의 목표 :
“개인의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들어주는 과업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존재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인간”
- 문학상담에서 '언어활동'의 중요성
- 대상과의 접촉면 늘리기 :
예술가, 자신의 삶으로 대상이 들어오게 하는 것
- 예술가도 예술의 치유적 속성에 대해 직접 경험하기

(2)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
- 개인의 희생과 치유과정
- 용어의 사용 :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 등
- 국내외 사회적 트라우마 사례 :
광주 트라우마센터, AWBW(A Window Between Worlds)

논의 내용

(1) 예술치료와 예술치유의 차이점과 공통점

- 각 개념에 대한 구분 짓기보다,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에 집중

(2) 예술치유 혹은 사회적 예술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 논의

- 개념에 대한 언어화 작업
- 평가 시 평가자의 예술(치유)에 대한 입장이 중요
- 교육학적 방법론 참고

(3) 예술치유의 주체 예술가

- 교감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함

4.2.4. 4차 주요 내용 _ 예술치유의 개념 및 의미화

(1) 기존 워크숍 리뷰

- 예술치유에 대한 정책의 이해도와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도식화, 이분법)
- 예술가가 예술치유를 하는 본질적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 마련
- 치료와 치유를 구분 짓기보다는 둘 사이의 협력체계 고민이 필요 :
치료와 치유의 통섭적 관계

(2)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와 예술치유의 상호협력/보완성

- 정책적으로 예술치유를 접근하는 상황 인지(상호이해나 침투 과정 없이 규정된 경우 다수)
- 예술의 중첩된 가치 안에서 치유라고 말하는 것 혹은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 필요
- 예술교육, 예술치료, 예술치유의 경계 짓기 어려운 교차성 존재

(3) 예술치유를 바라보는 서울예술치유허브만의 관점 정리 필요

- 기관의 미션 및 역할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필요

4.2.5. 5차 주요 내용 _ 입주 작가들의 견해

(1) 입주 예술가/단체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자율성 보장 필요
 - 일관된 회차, 시간 제시 방법 지양
- 프로그램 대상자, 지역 정보에 대한 기록이 필요
(이후 작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 보관 필요)
- 예술치유 과정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 전문적 경험, 정보 겸비한 컨설턴트(멘토) 필요
 - 프로젝트 관련한 실효성 있는 컨설팅과 멘토링이 필요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 예술 중심인지 치료·치유 중심인지 불명확
- 서울예술치유허브가 가지고 있는 강점 발굴 필요
- 치유, 치료의 예술적 가치는 무엇인지

(3)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와의 관계

-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예술치유'의 혼재, 복잡성
-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의 구분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하위개념으로써의 예술치유가 아님

4.2.6. 6차 주요 내용 _ 외부 작가들의 견해

(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

- 레지던시 혹은 LAB 형태의 운영
- 짧은 입주기간
- 신진 단체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자발적 네트워크를 위한 설계
- 전문가 그룹과의 매칭
- 형식적인 컨설턴트보다 협력자, 공동연구자 개념의 파트너 필요

(2) 예술치유와 예술교육의 차이

- 예술교육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적 가치나 방법을 공유
- 예술교육은 어떤 질문을 통해 접근하는지를 배움

(3) 예술치유의 정책화 과정

- 예술치유가 일반 서비스와 다른 점에 대한 합의 필요
- 예술치유의 대상을 일반화 시키는 문제점
 - 서울예술치유허브만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 필요

4.2.7. 7차 주요 내용

(1) '예술치유'의 개념에 대하여

-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과의 관계설정 필요
 - 단순 구별 짓기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군을 예술치유에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 정형화된 대상 트랙에서(독거노인, 위기 청소년 등) 벗어날 필요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치유'에 대한 입장, 관점 정리 필요
- '예술치유'의 모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략 필요

(2) '서울예술치유허브' 기관의 정체성과 레지던시

-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간인지, 예술치유를 주로 하는 활동 그룹을 위한 공간인지 토론 필요
- 레지던시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단순 지원시스템의 변화보다, 서울예술치유허브가 담아야 할 예술(치유)가 무엇인지 고민 필요

4.2.8. 8차 주요 내용

(1) 예술치유 개념화 (박은선 교수 제안 내용)

- 예술치료(혹은 치료)의 목적(혹은 대상)
 - (문제 혹은 부적응적) 증상 및 장애
 - 일상 삶에서의 적응
 - 자기 이해, 영적 성숙
- 변화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
 - 현재의 상황이 나빠지지 않거나 그 진행을 늦추는 것
 - 새로운, 적응적인 양상이 증가하는 것
- 차원의 경우
 -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 감각, 행동, 인지, 정서, 관계, 영적 차원
 - 예방적 차원, 처치적 차원
- 접근을 중심으로 할 때의 순차적 분류
 - 예방
 - 생활양식의 조절 : 운동, 수면, 영양, 금연
 - 웰빙 : 스트레스 조절, 만족도 증가
 - 치료 : 심리적 고통, 문제, 적응적 양상 증가
 - 재활

- 치료/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자기 경험에 대한 타당성(validation), 관계에서 수용됨의 경험, 조망능력 등
- 논쟁은 개념과 직업의 혼란과 충돌로 설명할 수 있음.
즉 예술치유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의 분야(말하자면 예술치유사라고 부를 수 있는 직종)로 보는가
 - 직업이 표방하고 있는 개념 : 이 직업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
 - 직업의 근간이 되는 구체적인 지식체 :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법학
 - 직업의 부분들 간의 일관성 : 전문성이나 이론적 체계, 실천적 규범 간의 일치와 충돌의 정도
 - 직업규범에 대한 헌신 : 예를 들어 변호사라면 이에 요구되는 규범에 동의하는가
 - 구성원이 일생동안 그 직업에 머무르는 기간의 정도
 - 구성원들 사이의 신념체계, 개념 등에 대한 합의
 - 자격, 교육, 훈련조건 등에 대한 합의

- 예술가라는 직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념과 구체적인 지식체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는 있으나 부분들 간의 일관성, 직업규범, 개념이나 자격 등에 대한 합의는 분산성이 높음
- 예술치료의 경우 예술가의 경우보다는 세부적인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교사, 철도기관사 등과 비교할 때 개념에 대한 합의, 신념, 직업에 머무르는 시간 등은 분산성이 높음
- 예술치유는 이에 비해 하나의 직업 혹은 분야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계임. 그러므로 개념 자체로 이해되고 전달되는 것이 더 강한데 문제는 이를 profession 혹은 분야의 틀로 이해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
- 예술치료든 예술치유든 직업적 정의에 따라서 혹은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분명해지지 않는 내용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그 모호함이 숨 쉬는 공간이 필요함
-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가
- 그 안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향후 방향 (이원재 소장 제안 내용)

- 정체성
 - 예술치유를 위한 사회적 협력공간
 - 서울의 예술치유 생태계/씬(scene)
- 방향성
 - 기존의 “예술치유 분야입주 작가들에 대한 지원 센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서울의 예술치유생태계의 형성(1 단계)을 위한 사회적 협력 공간(기관)”으로 공진화
- 운영모델
 - 협치 : “더 많은 권한이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
 - 공간너머 : “지키는 공간이 아닌 개방형거점으로”
 - 상호학습 : “목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육이 되는 관계”

4.3. 공론장 주요 내용 요약

(1) 예술치유, 예술치료, 예술교육의 개념화 및 개념 변화 수용

- 예술치유, 예술치료, 예술교육 개념화의 다양성과 복잡성
- 병리를 둘러싼 개념의 범위 확대로 인해 치료의 개념과 범위 자체도 변화하고 있음

“치료라고 하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더 크게 얘기하면, 적응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상황에 관계없이 적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적, 행동적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촉진시키는 것이 있다는 게 정의예요”

“대부분의 예술치료사들이 예술가이면서 치료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선 경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훈련과정에서 실행하는 데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요”

“다양한 예술 활동이 사회적 인식변화와 응대에 좀 더 신빙성을 실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예술치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본질인 표현과 공유 또는 개방성, 자발성 이런 개념과 매우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된 대상을 통해서 실제 사회의 어떤 인식까지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의 원동이 예술치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지속가능한 정체성 확립

- 예술 중심인지 치유 중심인지 불명확함
-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장점을 활성화하는 전략 필요

“예술강사, 예술치료강사, 문화예술활동가 그리고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기관이 지을 필요도 없고 통합 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활동가라고 해서 치유적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가라고 해서 치유와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통합하고 정체성을 정의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치료를 요구하시는 분을 매번 만나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가끔 와서 저를 당혹스럽게 할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허브라는 공간이 가지고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주되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이 공간의 무엇을 인지시켜주고 싶은지, 이 공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술치유라고 했을 때는 예술치유라는 것이 아예 따로 만들어 지는 게 속 편하겠죠. 예술가가 치유를 하고 치료사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술치유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는게... 치료소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고 치료색 을 다 빼래요. 그럼 예술가만 뽑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3) 서울예술허브치유의 운영 모델 수립

- 정량화된 평가지표, 프로그램 회차, 단년 입주와 작업 기간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컨설턴트, 멘토 보다는 협력자, 공동연구자 등 실질적인 파트너 필요
- 형식적인 레지던시 를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작업, 전문가 그룹과의 매칭이 가능한 구조와 기관 필요

“평가를 받을 때 인원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로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뭐했지라는 생각 들이 들곤 했어요. 흐름상 소통이 잘 안 되서 평가 오시는 것 상관안하고 내용을 좀 수정 했었어요. 진행 흐름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굳이 참여자들에게 보여줬는데, 평가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술을 통해 소통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자꾸 평가에 연연하여 진행하는거냐고 하시니까 어디까지가 평가이고 멘토링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사 할 때 힘들어요. 저희 나름 대상자에 대한 조사 를 엄청 많이 해요. 심사 딱 들어가면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미술 치료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치료에 필요해요? 이런 질문부터 하니까 미술 치료를 설명할 수도 없고요. 해보면 이해가 높은 거고 안 해보면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인큐베이팅이 목적이면 지속적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정말 치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던가 지원해준다던가”

(4) 예술치유의 정책·제도화 추진

- 서울 예술 치유 허브 를 넘어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화, 제도화 준비
-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프로그램 대상 설정과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전문가를 더 전문가스럽게 양성하는 것도 인큐베이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년쯤 이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일괄적인 공모와 일괄적인 선발의 방식을 변화시켜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에 입주한 팀들끼리도 서로 멘토나 멘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방식. 이 공간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정말 허브로서, 성북이라는 지역성보다는 서울 전체 를 아우르는. 서울 전체 내에서 여기 자체 내에서 프로젝트들을 마련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한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들이 선행이 되어서 그 안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을 선정하는게 좀 더 이름에 맞춰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5.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 모델 제안

087	5.1.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 개념의 준거점
089	5.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094	5.3.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모델
096	5.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핵심 사업

5.1.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 개념의 준거점

(1) 예술치유의 개념화

- 예술치유는 “예술에 내재된 치유성에 기반하여, 개인과 커뮤니티가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예술 활동”

(2) 예술치유의 구성 요소

- **과정의 내발성**
 - 예술치유는 개인의 내발성에 기초하여 자기 주관성을 극복하며, 개인과 사회(커뮤니티)의 변화를 경험하는 활동
- **예술의 치유성**
 - 예술은 인간에게 내면화된 삶의 요소(매체)로서 “감각적 경험”, “인지적 성장”, “감정적 정화”, “성찰적 조망”, “즐거움과 몰입” 등을 통한 치유성을 내재하고 있음
- **관계의 통합성**
 - 예술치유는 예술치료, 예술교육 등과의 배타적 개념화를 극복하고 “내용(가치)의 통섭성”, “기능(정책)의 연계성”을 전제로 개념화, 정책화 되어 함

(3) 예술치유의 관계성

- 예술치유와 예술치료, 예술교육 사이의 관계는 개념적 정의나 직업적 분류에 따라 분명해지는 개념, 관계가 아님
- 예술치유와 예술치료, 예술교육 사이의 관계 설정은 배타적, 차별적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통섭적, 융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귀납적(실천적)으로 개념화되어야 함
- 현재는 예술치유, 예술치료, 예술교육 사이의 분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인정하고) 그 모호함이 숨길 수 있는 협력적 공간이 필요

[그림]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 개념의 준거점



5.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1)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 예술치유를 위한 사회적 협력공간
- 서울의 예술치유 생태계/씬(scene)을 위한 플랫폼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방향성

- 현재의 "거주형 창작공간"에서 "생태계 _ 협력형 플랫폼"으로 전환
- 현재 서울예술치유허브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예술가들의
거주형 창작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공모, 선발, 거주형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예술치유 현장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협력형 플랫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예술치유 관련 다양한 작가와 전문가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의 공유를 통해 협력 활동이 축적되고 시스템화 될 수 있는
플랫폼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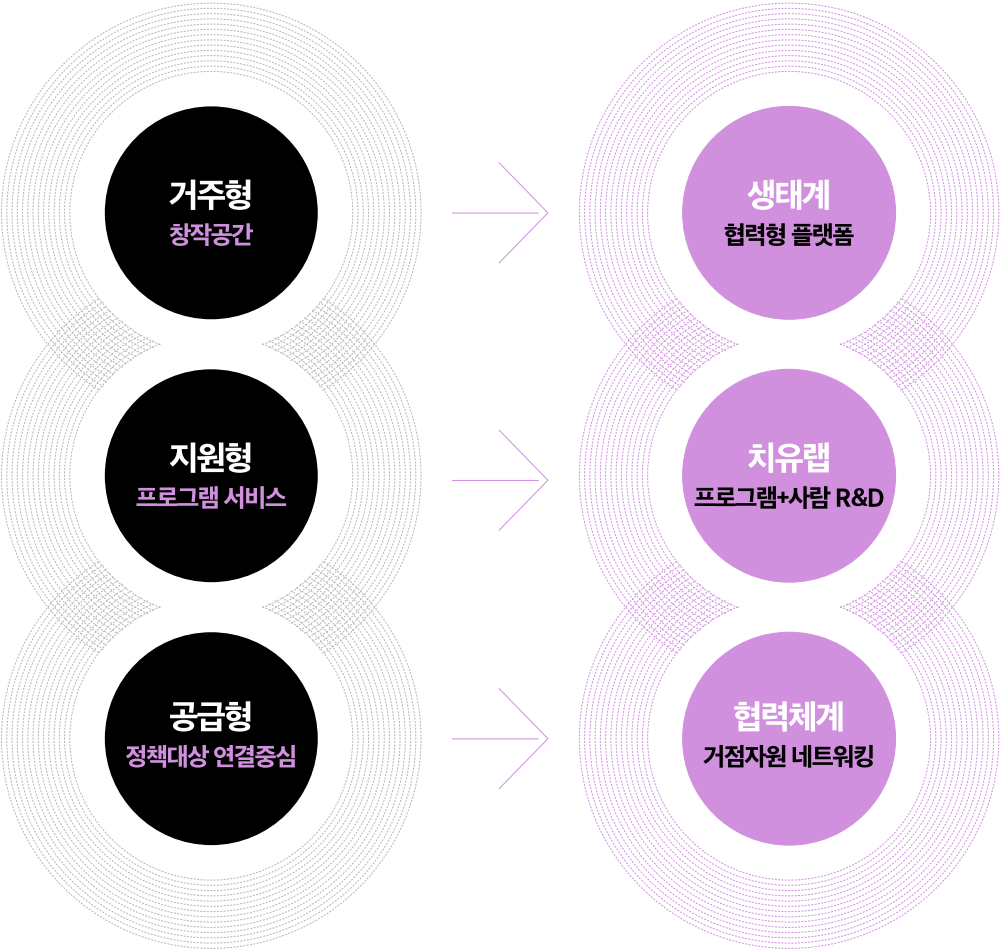
- 현재의 “지원형 프로그램 서비스” 중심에서
“치유랩 _ 프로그램+사람 R&D” 중심으로 전환
- 현재 서울예술치유허브 입주 작가들은 이유 대상에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구조
- 개별 작가, 프로그램 지원은 현재의 예산 구조와 작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확산되거나 체계화되기 힘든 구조
- 예술치유의 관점에서도 입주 작가들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구현되기 어렵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작업 환경
- 서울예술치유허브에 대한 인식 역시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공간 및 기관이 아니라
지원 조직으로만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
- 이에 서울예술치유허브 자체가 단순한, 수동적인 지원조직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치유 활동들이 모이고 협력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
- 랩 구조를 통해 결과물 중심의 공급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예술치유 관련 작가,
연구자, 다양한 전문가 등이 함께 연구하고 작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변화 필요

- 현재의 “공급형 정책대상 지원 프로그램” 중심에서
“협력체계와 거점자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현재 지원 프로그램은 행정 중심의 차별화된 정책대상
(소외계층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 등)에 따른 공급 프로그램 중심이며,
이 역시 매우 제한된 시간과 예산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
- 예술치유를 단순히 치유 대상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술치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본질적 접근과
이를 위한 거점 공간·기관이 필요한 상황
- 공급형 정책대상 지원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결과와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예술치유 주체들이 사회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작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이에 서울예술치유허브를 서울의 예술치유 관련 협력체계이자
거점자원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 프로그램, 획일화된 작업 지원 환경에서 벗어나 예술치유 자체가
사회적·개별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창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가 필요

[그림]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변화

정체성

예술치유를 위한 사회적 협력공간
서울의 예술치유 생태계/씬(scene)



(3) 서울예술치유허브 정체성의 핵심 요소

- 생태계 _ 협력형 플랫폼
 - 다양한 예술치유 관련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연구, 작업,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협력 공간
- 치유랩 _ 프로그램+사람 R&D
 - 예술치유 콘텐츠, 프로그램, 정책사업 등의 사회적(서울의) 모델을 만들고 공유하는 예술치유 랩
- 협력체계 _ 거점자원 네트워킹
 - 예술치유 작업을 매개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 문화예술교육 사업 외) 등의 관련 자원 협력체계 구축

5.3.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모델

(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모델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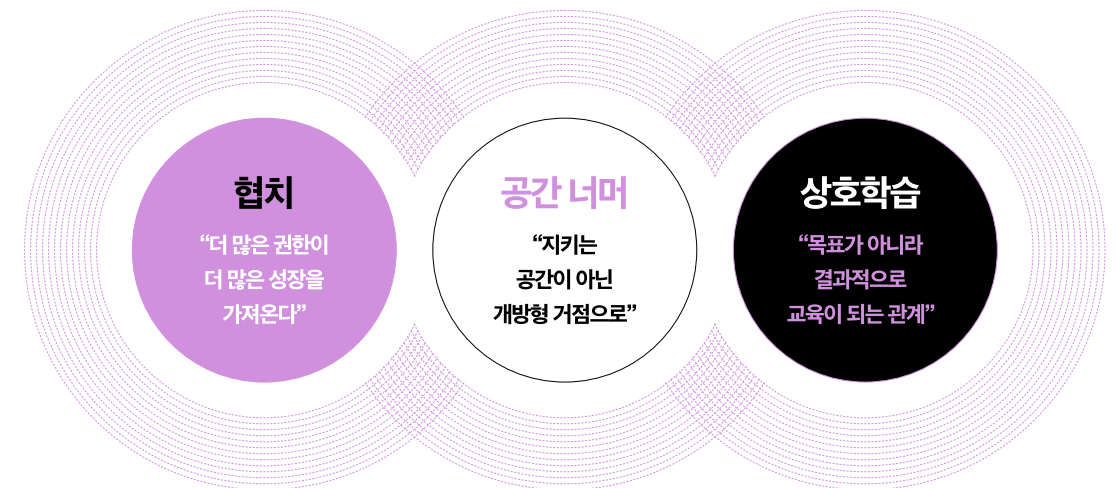
- 기존의 “예술치유 분야 입주 작가들에 대한 지원 센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서울의 예술치유생태계의 형성(1단계)을 위한 사회적 협력 공간(기관)”으로 공진화

(2)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모델의 원리

- **협치** “더 많은 권한이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
 - 기관과 공간 운영의 협치 원리심화 :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등 활성화
 - 협력에 기초하여 운영 : 다양한 협력체계 확보
 - 개별 작가 지원이 아닌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
 - 운영의 행정절차 간소화 : 창작공간이 아닌 협력공간으로서의 행정구조 모델링
- **공간 너머** “지키는 공간이 아닌 개방형 거점으로”
 - 커뮤니티와 협력 중심으로 공간 구조 개편 : 개방형 공동작업장, 코워킹 스튜디오 등 활성화
 -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서울문화재단 등 서울시 타 시설/공간과의 협력 강화
- **상호학습** “목표가 아니라 과정과 관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이 되는 관계”
 - 인큐베이팅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협력이 작동하는 현장형, 협력형 공간
 - 사회적 협력과 작업의 과정을 통해 상호학습하고 공진화하는 플랫폼
 - 치유예술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통섭 작업모색: 예술, 교육, 과학, 복지 등

[그림]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변화

기존의 “예술치유 분야 입주 작가들에 대한
지원센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서울의 예술치유생태계의 형성(1단계)을 위한
사회적 협력공간(기관)”으로 공진화



- 기관과 공간 운영의 협치 원리 심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등 활성화
- 협력에 기초하여 운영: 다양한 협력체계 확보
- 개별 작가 지원이 아닌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
- 운영의 행정절차 간소화: 창작공간이 아닌 협력공간으로서의 행정구조모델링
- 커뮤니티와 협력 중심으로 공간 구조 개편: 개방형 공동작업장, 코워킹 스튜디오 등 활성화
-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서울문화재단 등 서울시 타 시설/공간과의 협력 강화
- 인큐베이팅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협력이 작동하는 현장형, 협력형 공간
- 사회적 협력과 작업의 과정을 통해 상호학습하고 공진화하는 플랫폼
- 치유예술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통섭 작업 모색: 예술, 교육, 과학, 복지 등

5.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핵심 사업

(1) 서울예술치유 협치기반 마련

-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위원회 활성화
 - 구성 : 현행 외부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외부전문가+서울예술치유허브 참여작가"로 확대 구성
 - 역할 : 현행 자문기구의 역할을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 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및 의사결정 단위로 재설정
 - 운영 :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회의 주기, 활동 등을 활성화
- 서울예술치유네트워크 (가칭)예술치유의 힘 구성 및 지원
 - 서울문화재단의 차원에서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예술치유 작가, 연구자, 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및 협력 테이블 형성
 - 서울의 예술치유를 둘러싼 교류와 네트워킹(네트워크 파티, 캠프), 개방형 공론장·공유지(사례 공유회, 포럼 및 토론회), 모델링과 정책화(워크숍, 연구, 아카이빙, 아카데미) 등 진행
 - 예술치유, 예술치료, 예술교육 주체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예술치유 랩(LAB) 설치 및 운영

- (가칭)예술치유 랩
 - 예술치유의 구체적인 모델링과 사회적 공유를 추진할 수 있는 랩 설치
 - 현행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기본 구조를 단계적으로 랩 방식으로 전환(이행) : 공간 구조, 활동 지원 사업 체계 등 재구조화
 - 현행 "1년 단위, 입주작가 공모사업, 입주작가별 작업실 배치, 입주작가 연계 외부 프로그램 개별 공급" 방식에서 "다년 단위, 다양한 예술치유 주체 입주 기획(작가, 기획자, 연구자 등), 협력공간(co-working space) 구성 및 활성화, 자체 기획을 통한 외부 기관 및 단체 연계" 방식으로 전환(이행) 추진



[그림] 예술치유 랩 설치 및 운영

(3) 서울예술치유 협력사업 모델링

-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연계
 -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들과 예술치유 협력사업 추진
 - 각 창작공간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예술치유 협력사업 및 콘텐츠 모델링
 - 각 창작공간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내 지역별 예술치유 네트워크 활성화
- 주요 기관 및 대학 협력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 서울내 기관 및 대학과 예술치유 협력연구 및 사업 추진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기타 기관 등과 예술치유 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 서울내 대학들 중에서 예술치유 관련 학과들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협의테이블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예술치유의 관점, 가치에 기반하여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예술치유 기관 및 공간 연계 :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주민센터 외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대학 등과 협력 사업 기획

(4) 서울예술치유 아카이브 구축

- 서울예술치유 아카이브 구축
 - 서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예술치유 콘텐츠 및 프로그램 아카이브 구축
 - 예술치유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개방형 아카이브 운영
 - 예술치유 관련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예술치유의 사례, 방법론 등을 공유하고 공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카이브 구축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공유를 위해 서울예술치유 관련 지도(mapping) 만들기, 매뉴얼·핸드북 제작 사업 등과 연계
 - 중장기적으로 예술치유 관련 작가 풀(pool) 구축, 예술치유 관련 사회적 자원 공유 시스템 마련 등 서울예술치유생태계 환경 조성 모색

(5) 서울시 예술치유정책 수립 및 제도화 추진

- 서울시 예술치유 정책 연구
 - 서울시 차원에서의 예술치유 정책 수립, 제도 개선, 환경 조성 등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 제안
 - 서울시 예술치유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협력 및 지원
- 서울시 예술치유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활동을 축적하여 서울시 예술치유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계하고 체계화 모색
 - 서울시 예술치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예술치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환경 조성 추진

6. 부록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_
공론화 과정 주요내용
(1차-10차)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1차 전문가 워크숍>

일시/장소

2018.06.04.(월) 16:00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10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전문가(6)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남미진·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 임미혜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
신당창작아케이드 나희영

주제

1. 서울예술치유허브 주요사업 흐름 검토(주요 변화와 쟁점 / 전환점 / 이슈)

발표내용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위원회의 주요 내용(2013-2018)

연도	주요 내용
2013	- 커뮤니티 아트 → 예술치유로의 전환 - 전환배경 : 재단비전 및 전략 재수립, 위탁경영평가 - 예술가 레지던스 vs 프로젝트 실현 지원 공간 → 상충점 발생 - 센터의 예술치유 전문성 확보 방향 및 방법 제안 - 정성평가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효과연구 필요 - 예술치료/치유의 개념 구분 필요(치료 : 제3자 개입 有, 치유 : 자기회복력) - 참여 대상별 프로젝트 효과성 측정 vs 예술치료 전문가 양성 → 센터의 방향 결정 必 - 입주공모 시 연구학술 트랙을 신설하여 프로젝트별 성과 측정(제안) - 예술가 레지던스로서 예술가의 창작력 발현이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 必
2014	- 예술가가 실현하는 ‘치유’의 범위 ‘치유’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접근할 때의 어려움, 거부감 : 창조성을 근원으로 ‘치유’ 발휘 - 평가나 효과성 측정은 예술가들의 작업을 위축하고 창조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대표성을 갖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적 지원 - 우수한 프로젝트의 지속적 보완을 통한 차별성/완성도 제고 必 - 예술가 대상 다양한 계층의 정서적/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전문가 교육 必

연도	주요 내용
2015	- 센터 규모 대비 치유/치료 통합 운영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 일반 예술과 병리적 치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센터만의 차별점 부각 必 - 사업의 성과를 추적하고 사업 발전/확산에 적용하는 부분 미흡 → 센터의 미션화/체계화를 통한 중장기적 성과 추적(계량화) - 예술치료와/치유 개념의 구분 - 치료의 주체는 치료사/치유의 주체는 당사자 - 치료/치유의 개념을 구분해도 일반대중이 느끼는 치유의 개념을 따로 분리해내기 어려움 - 센터의 사회적 치유로서의 기능/역할에 있어서 접근 방법 - 사회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관계 회복, 또는 일자리 창출로서 예술치료사 양성을 통한 사회 기여로서의 접근 가능성 검토 - 센터의 랩 기능으로서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대상군 발굴 - 대상군을 제시해도 사업에 지원하는 예술가들에게는 큰 차별점이 없을듯 - 구체적 대상군 제시보다는 상위개념의 대그룹을 분류하여 다루는 게 좋을 듯 - 몇 가지 트랙 제시 : 임상적 치료가 가진 기법을 굳이 예술가 치유헌동 전반에 녹여내려고 하는 것은 무리 - 대상에 대한 피상적 접근은 치료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센터가 예술가-치료사를 연결하는 중간역할에 집중하여 협업할 수 있는 구조 마련 必 → 가시적 성과에 대한 고민이 발생 ‘랩’을 서울시 ‘청년허브’와 같은 일종의 플랫폼으로 구축 → 하나의 이젠다를 발굴해 메시지를 던지는 공간으로서 부각

연도	주요 내용
2015	• 센터와 지역의 관계설정 방향 - ‘치유’로서 재단과 서울시의 정책/사업은 지역 연관성이 크지 않으나, - 센터 개방성과 운영 거버넌스는 센터에 장점으로 역할을 할 것임 - 치유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시민 사업(텃밭, 공방)의 경우 성북구의 다양한 시민/마을 단체와 연계로 운영 효율화 모색 가능 - 다양한 운영 거버넌스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와 운영효율화 도모(ex.성북공유원탁회의 등) - 예산/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센터의 전략과 방향에 집중한 지역 맺기 전략 必 → 재단 차원에서 센터의 치유 컨셉에 대한 합의 도출 • 입주공모 시 사업/주체에 대한 공모의 다양화 → 사업 기획/연구가 가능한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예술가/단체 or 연구기관 공모를 통해 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효율화 도모 • 센터 명칭변경(ex.〇〇치유센터) - 운영에서의 방향은 명확해지겠지만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거버넌스는 축소될 우려 有

연도	주요 내용
2015	• 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기능과 역할 검토 必 - 광역단위(서울) 예술치유 거점으로서 센터의 목표 재수립 - 센터의 ‘거점화’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확산하는 기능에 대한 설계 必 - 예술치유센터로의 방향 설정과 관련해 중장기 전략 연구 진행 - But, 예산/인력이 확대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유자원 안에서 전략 수립에 대한 방안 모색 必 • 2016년 프로젝트 입주공모의 방향 설정 - 공모 진행 시 큰 틀(주제/대상)을 제시하고자 함 : 위기계층 대상 중장기적 개발 모색 中 - 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위기계층 대상 특화 사업 必 - 일반공모/기획초청 공모 병행으로 센터 방향에 맞는 대상과 주제에 적합한 공모자가 없을 시 기획초청으로 적합한 예술가/치료사 발굴 - 지원 건수가 축소되더라도 단체별 지원 예산의 확대 必 • 연구기능의 강화 - 예술치유 성과, 예술의 사회적 효과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 가능 - 연구기구로서 입주단체를 선정하여 예술가 및 운영진과의 공동연구 실험 검토: 네트워킹 → 아카이빙 → 연구자 희망에 따른 다양한 연구(결과물) 도출 가능

연도	주요 내용
2016	•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지침 必 - 본부 차원의 중복 신청자 관리, 강성 참여자 대처 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 검토 - 프로그램 유료화 전환에 대한 목적과 참가비 활용 방안 모색
	• 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재개관 행사 기획 - 레지던시 공간의 특성을 부각한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개최(안) : 콘텐츠를 실행하는 아카데미형의 콘텐츠 쇼케이스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형태의 센터 홍보(안) :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행사(프로그램 참여 등) 결합 가능
	• 2017 프로젝트 입주공모 개선방향 - 공모 주제 및 대상 제시 여부 : · 센터 차원에서 중장기적 개발·지원이 필요한 대상 집단 · 프로그램별 일반성인/특수집단의 형태는 유지, 사회적 위גיע층에 대한 구체적 대상 제시 - 예술치료사 실행의 사회적 위גיע층 대상 1년 단위 프로그램과 예술가 실행의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의 2 트랙 - 8개 단체 선정 가정 하에 4개의 대상 제시, 4개의 자율 제시 방안 검토 - 특수직군/집단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 차원의 참여자 모집 必

연도	주요 내용
2017	•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 운영 - 특정 대상층에 대한 효과성 측정과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 지원 구조 必 → 축적된 콘텐츠/협력 기관을 통한 향후 확산 체계 구축 가능 • 입주단체 지원 체계 강화 - 입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예술가만의 노하우 축적 지원 : 입주단체 간 프레젠테이션, 시범 워크숍, 협업 등 공동학습 구조 지원 • 서울예술치유허브 발전 방향 구축 - 사회적으로 치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센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플랜 수립 必 - 병리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층 보다는 예술가들만의 성숙한 방식으로의 접근 必 - 치료와 예술이 협업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연도	주요 내용
2017	• 입주 프로젝트 운영 구조 개선 - ‘통합 컨설팅’으로 멘토링 및 평가제도 개선 : 연간 컨설팅 1회, 상하반기 합평회 각 1회 - 지원금 운영 구조 개선 : 공간사용료 폐지, 결과자료집 제작 의무 폐지 - 기관(학교 등) 협력을 통한 연중 상시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검토 - 치료사 중심의 상설 ‘예술보건소’에서 예술가 작업으로의 연계 - 2가지 입주 트랙 운영 방안 : 신규입주 + 장기입주(3~4년) •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주제 선정 - 역할 및 정체성 확립 : 전문인력 양성 기관 또는 시민 대상 프로그램 공급 기관으로서의 역할 - 서울시 예술치유공간 확충에 따른 선도모델 개발 - 예술치유공간 조성을 위한 근거/필요성 제시에 따른 정책 수립 •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 운영 방향 - 생애주기별 신규집단 대상 사업 개발과 위기청소년 대상 중장기 지원 방안 모색

연도	주요 내용
2018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구체적 연구 방향 및 영역, 방법 논의 - 센터의 기능 재정립 : 예술치유 단체 인큐베이션 / 프로그램 공급 역할 • 전문인력 양성 - 매년 신규 입주 예술가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커리큘럼 및 예술치유 가치 정립 : · 전문인력 양성 커리큘럼 구축 및 예술치유 담론 형성으로 혼란 감소 · 예술치유 가치 공유 방식, 사회 확산 방식, 담론 형성과 인지 확대에 대한 고민 · 시대 흐름에 부합한 (예술치유) 과제 도출로서 예술가와 사회현상에 대한 매개 역할 • 사회적 예술치유사업의 구조와 신규 대상 발굴 -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의 거점형/확산형 구조 보완 : · (1안) 사업별 구분에 따른 수혜대상 재정비 및 신규/경력 예술가 역할 분담 · (2안) 운영 장소 획일화를 통한 공간 활성화(거점화) •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 브랜딩 전략 모색

연도	주요 내용
2018	• ‘허브’로서의 센터 역할 - 예술가 파견 기반 조성 :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풀 구축 → 전문가 집단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 - 기업 연계를 통한 예술가 파견기반 조성 (예. 기업 직원 복지 프로그램 공급) - 예술가 살롱문화 형성 :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열린 공간, 누구나 협업/ 회의가 가능하고, 공통의 분야에 있어서 담론(예술치유의 역할/필요성)을 형성할 수 있는 ‘예술치유의 장(scene)’ 조성 - 기한이 기약된 지원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이 지속성을 담보로 교류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 필요 → 단순 지원사업 수행 이상으로 재단-예술가, 예술가-예술가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허브가 가진 자원 활용 방안 및 동기부여 전략 디자인 필요

논의사항

예산 축소 원인

- 2016년에 고유사업으로 전환. 인건비 재단 자체에서 책정(실질적 사업비는 소폭 축소)
- 초기 하드웨어 조성을 위한 민간 대행 사업비 비중↑ (조성 완비 후 민간 대행 사업비 축소되고 없어짐)

2012년 커뮤니티아트 창작공간에서, 2013년 치유공간으로의 전환 시 논의 과정

- 2012년 창작공간 전반에 걸쳐 예술가 지원과 지역 재생 이슈가 형성-시민 대상 프로그램 강조
→ 다수의 시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던 성북에 시민 프로젝트 기능을 집중
- 2013년에 창작공간들의 고유사업화 진행(창작공간의 특성화 전략, 남산-연극/금천-시각 등)
→ 성북 또한, ‘예술치유’라는 특화 분야에 집중

창작공간에서 예술교육본부로의 소속 변경

- 예술교육과 치유의 공통점(상호작용)
→ 예술가들이 창작자로서의 모습보다 시민들을 이끌고 학습하게 하여 변화를 일으킴
- 이러한 변화를 예술 교육 쪽에 집중하고자 함

연도별 운영위원회 이슈

- 2013년 운영위원회 결성, 센터의 예술치유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진행
- 2014년 치료사가 아닌 예술가가 특정한 대상층을 만날 때 이해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
- 2015년 예술치유의 전문적 공간으로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 고민, 예술치료 콘텐츠 개발과 성과 축적 논의. 센터의 명칭 변경안과 더불어 성북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
- 2016년 입주 작가 중심으로 운영위원 구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질적 내용 논의, 변경한 명칭에 대한 대외 홍보 방법 논의
- 2017년 생애주기별 예술치유 지원의 등장으로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논의,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 인식

예술치유 생태계(씬, scene)에 부합하는 지원 전략 설계 필요

- 예술치유가 축적될 수 있는 주체 형성
- 사회적 예술, 커뮤니티 아트, 예술치유 등의 개념이 혼재된 상황
→ 정책적 사업으로만 매몰,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의식
→ 이에 대한 정합성 마련 필요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2차 전문가 워크숍>

일시/장소

2018.06.15.(금) 16:00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8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전문가(4)

서울문화재단 박은희
앨리스와 토끼 최민순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

주제

- 1. 예술치료의 개념 및 담론
- 2. 사회적 예술치유의 의미와 사례

주요내용

1. 예술치료의 개념 및 담론

- 예술치료를 정의 내리는 방식의 다양성(치료에서 미술의 범위와 방법과 과정)
- 미술치료에서 ‘해석’이 자리 잡는 비중과 의미
-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의 위치와 역할, 정체성
- 미술치료의 역사성

2. 사회적 예술치유의 의미와 사례

- 사회적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예술적 작업의 전반
- 사회적 예술치유의 중요지점은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
- 예술의 치유적 의미는 자율성과 실존을 지켜나가는 활동
 - 자율성 :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 고덕 주공 재건축 현장과 강동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예술치료 사례

논의사항

- 집단적 애도로 인해 개인적 회복이 간과되는 현상 우려
 - 치료의 완결은 결국 자율성의 회복(집단의 자율성은 개인의 자율성에서부터 비롯)
- 주체 발굴을 위한 지속·순환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네트워크 활성화)
 - 정해진 횟수와 일회성 전시로만 귀결 → 사례나 경험은 풍부하나 축적되지 않음
- 내적(서울예술치유허브)인 변화를 꾀하면서, 외부(기관, 학교 등)라는 사회 환경도 관찰
- 병리의 범위 확대로 인한 치료의 개념 확장(cure에서 care로)
- 예술의 내재적 성격에서 분화된 치유
(예술치유는 예술의 내재된 치유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활동)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3차 전문가 워크숍>

일시/장소

2018.06.29.(금) 16:00
서울예술치유허브 4층 스페이스 나눔

참석자(6명)

연구진(3)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전문가(7)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 임미혜
앨리스와 토끼 최민순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김인설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시인 진은영

주제

1. 예술 정책/연구/기획자/기관 등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예술치유 개념 및 담론

주요내용

1. 예술가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문학상담 중심으로)

- 우리 시대의 상담의 목표
 - “개인의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들어주는 과업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존재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인간”
- 문학상담에서 ‘언어활동’의 중요성
- 대상과의 접촉면 늘리기 : 예술가, 자신의 삶으로 대상이 들어오게 하는 것
- 예술가도 예술의 치유적 속성에 대해 직접 경험하기

2.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
- 개인의 회생과 치유과정
- 용어의 사용 : 국내 / 해외 :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 등
- 국내외 사회적 트라우마 사례 :
광주 트라우마센터, AWBW(A Window Between Worlds)

논의사항

- 예술치료와 예술치유의 차이점과 공통점
 - “각 개념에 대한 구분 짓기보다,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에 집중
- 예술치유 혹은 사회적 예술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 논의
 - 개념에 대한 언어화 작업
 - 평가 시 평가자의 예술(치유)에 대한 입장이 중요
 - 교육학적 방법론 참고
- 예술치유의 주체 예술가
 - 교감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함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4차 중간 점검 회의>

일시/장소

2018.07.12.(목) 14:00
서울예술치유허브 3층 미술실

참석자(6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서울예술치유허브(2)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

주제

- 1. 지난 1, 2차 전문가 워크숍 회고
- 2.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 점검 및 향후 일정/계획 세부 논의

주요내용

1. 1, 2차 전문가 워크숍 회고

- 예술치유에 대한 정책의 이해도와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도식화, 이분법)
- 예술가가 예술치유를 하는 본질적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 마련
- 치료와 치유의 구분 보다, 둘 사이의 협력체계 고민 필요(치료와 치유의 통섭적 관계)

2.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와 예술치유의 상호협력/보완성

- 정책적으로 예술치유를 접근하는 상황(상호이해나 침투 과정 없이 규정된 경우 다수)
- 예술의 중첩된 가치 안에서 치유라고 말하는 것 혹은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 필요
- 예술교육 / 예술치료 / 예술치유의 경계 짓기 어려운 교차성 존재

3. 예술치유를 바라보는 서울예술치유허브만의 관점 정리 필요

- 기관의 미션 및 역할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필요

논의사항

- 서울예술치유허브 입주 작가 및 추천 작가/전문가 간담회 마련
 - 두 차례 간담회 + 한 차례 내부 워크숍
- 타 기관과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차별성에 대한 세부 논의 필요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5차 모임-입주 작가 간담회>

일시/장소

2018.08.06.(월) 13:00
광화문 센터포인트 roomC

참석자(13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서울예술치유허브(4)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 외 1인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박은희

입주 작가(5)

그림마음연구소 진아영
기획자 오지민
응용연극단체 문 김효진
자큰박스 류미
A.C. 클리나멘 김현주

주제

1. 서울예술치유허브 입주단체(작가) 간담회

주요내용

1. 입주 작가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에 자율성 보장 필요
(ex. 일관된 회차, 시간 제시 방법 지양)
- 프로그램 대상자, 지역 정보에 대한 기록이 필요
(이후 작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 보관 필요)
- 예술치유 과정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 전문적 경험/정보 겸비한 컨설턴트·멘토 필요
(실효성 있는 컨설팅과 멘토링이 필요)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 예술 중심인지 치료·치유 중심인지 불명확
- 서울예술치유허브가 가지고 있는 강점 발굴 필요
- 치유, 치료의 예술적 가치는 무엇인지

3.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와의 관계

-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예술치유’의 혼재, 복잡성
-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의 구분 필요
(문화예술교육의 하위개념으로써의 예술치유 지양)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6차 모임-외부 작가 간담회>

일시/장소

2018.08.24.(금) 10:00
서울예술치유허브 3층 스튜디오#5

참석자(12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서울예술치유허브(5)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우혜인
서울문화재단 박은희·임미혜

외부 작가(3)

극단 북새통 남인우
프락시스 김지연
홍댄스컴퍼니 홍혜전

주제

1. 서울예술치유허브 관련 외부 작가 간담회

주요내용

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

- 레지던시 혹은 LAB 형태의 운영
- 짧은 입주기간
- 신진 단체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자발적 네트워크를 위한 설계
- 전문가 그룹과의 매칭
- 형식적인 컨설턴트보다 협력자, 공동연구자 개념의 파트너 필요

2. 예술치유와 예술교육의 차이

- 예술교육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적 가치나 방법을 공유
- 예술치유는 어떤 질문을 통해 접근하는지를 배움

3. 예술치유의 정책화 과정

- 예술치유가 일반 서비스와 다른 점에 대한 합의 필요
- 예술치유 대상을 일반화하는 문제점
(서울예술치유허브만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 필요)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7차 모임-내부 워크숍>

일시/장소

2018.09.07.(금) 16:00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8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서울예술치유허브(4)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우혜인
서울문화재단 박은희

주제

1. 연구진 내부 워크숍

주요내용

1. ‘예술치유’의 개념에 대하여

-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과의 관계설정 필요
(단순 구별 짓기를 넘어 상호 연결성 고민)
-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군을 예술치유에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 정형화된 대상 트랙에서 (ex. 독거노인, 위기 청소년 등) 벗어날 필요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치유’에 대한 입장·관점
- ‘예술치유’의 모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2. ‘서울예술치유허브’ 기관의 정체성과 레지던시

-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간인지, 예술치유를 주로 하는 활동 그룹을 위한 공간인지 모호
- 레지던시 운영의 적절성
- 단순 지원시스템의 변화보다, 서울예술치유허브가 담아야 할 예술(치유)에 대한 고민 필요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8차 모임-내부 워크숍>

일시/장소

2018.10.22.(월) 13:00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참석자(8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서울예술치유허브(4)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
서울문화재단 임미혜·박은희

주제

1. 연구진 내부 워크숍

주요내용

1. 연구진 페이퍼 초안 공유 및 별도 작업 요청

- 예술치유 개념에 대한 초안(박은선)
- 예술치유와 정책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정리,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주체 꺼내기, 자기 욕망에 접근하고 드러내기, 현대사회에서 예술치유의 영역과 서울문화재단과 예술교육본부의 예술치유에 대한 관점(최혜자)
- 예술치유를 위한 사회적 협력(이원재)
- 과거 예술치유를 연구했던 시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예술치유 영역의 변화된 지점은?

2. 연구 보고서 형식 논의

- 예술이 갖는 치유성에 대해 정리+문화예술교육과 정책적 포지션에서 예술치유
- 두 페이퍼를 묶어서 완성형 페이퍼로 작성한 뒤 차기 모임 때 재논의

3. 향후 일정

- 9차 모임까지 각각 페이퍼를 발전시켜 정리 / 11월 말쯤 연구 토론회 개최

4.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결과보고서 목차(안)

1. 연구개요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 1.3. 연구 흐름 및 방법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 흐름 및 현황
- 2.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흐름
- 2.2.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현황
3. 서울예술치유허브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3.1.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2013)
- 3.2.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적용 사례 연구(2014)
- 3.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2015)
- 3.4.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2017)
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및 분석
5.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 모델 제안
- 5.1.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 개념의 준거점
- 5.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 5.3.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모델
- 5.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핵심 프로그램
6. 부록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9차 모임-내부 워크숍>

일시/장소

2018.11.05.(월) 14:00
서울예술치유허브

참석자(8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서울예술치유허브(4)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이유나,
서울문화재단 임미혜·박은희

주제

1. 연구진 내부 워크숍

주요내용

1. 목차 확인 및 보고서 내용 구성 논의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결과보고서 목차(안)

1. 연구개요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 1.3. 연구 흐름 및 방법

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 흐름 및 현황

- 2.1.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흐름(13년부터 현재까지 성과, 자기평가 작성)
- 2.2.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의 주요 현황(현재 사업)

3. 서울예술치유허브 관련 선행 연구 분석(각 연구 결론 부분 요약)

- 3.1.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2013)
- 3.2.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적용 사례 연구(2014)
- 3.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2015)
- 3.4.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2017)

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및 분석
(쟁점 도출 및 카테고리화)

5.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중장기 발전 모델 제안(구체성 필요)

- 5.1.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관점에서 본 예술치유 개념의 준거점
- 5.2.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정체성
- 5.3.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운영모델
- 5.4.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핵심 프로그램

6. 부록(세부 녹취록 첨부)

2. 예술의 내재적 치유성

- 의식 속 검열과 억제 기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자연 적 도구로서 예술
- 예술 작업을 통해 위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매번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노출
- 오각형, 육각형 다이어그램 축의 예
(공동체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 자기 작업의 연장, 서비스, 역량강화, 스펙 등)

3. 사회적 치유

- 관계를 치유하고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를 만나는 것
- 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을 결합하는 실험

4. 예술교육, 예술치유, 예술치료의 접근 방법

- 예술치유와 예술치료 : 직업적 관계나 수행자의 관계
- 예술치유와 예술교육 : 기능, 효과

5. 12월 4일(화) 연구 포럼 개최

- 전문가 및 예술가 초대
(예술가 : 양철모, 김윤진 등, 정책전문가 : 라도삼, 백선희 등)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10차 모임-내부 워크숍>

일시/장소

2018.11.19.(월) 14:00
서울예술치유허브

참석자(8명)

연구진(4)

명지대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문화연대 이원재·김재상

서울예술치유허브(4)

서울예술치유허브 김보정·우혜인·이유나
서울문화재단 박은희

주제

1. 연구진 내부 워크숍

주요내용

1. 목차별 보고서 취합 필요

2. 예술치유 개념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 국외 : 예술치유에 대한 절대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다양한 단어와 개념들의 조합으로 존재
- 국내 : 국외 연구를 한국 상황에 적용한 정도
 (특징 : 예술치유에 대한 평가와 효과에 관한 연구)

3. 예술치유를 전인적 성장이라는 보편적 정의에서부터 시작하고
관계성, 포용성, 통합성을 강조

4. 오각형 다이어그램의 꼭지점 구상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발행인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연구참여	책임연구원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공동연구원 박은선 명지대학교 교수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보조연구원 김재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임마혜 서울예술치유허브 이유나, 김보정, 우혜인, 이정민 미래전략팀 남미진, 박은희
디자인/인쇄	디자인컴퍼니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18년 12월
문의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 3길 17 (종암동 28-358) T. 02) 943-9300 seongbuk@sfac.or.kr

